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 南 高 中 同 宿 會 報

1968년 6월 1일 창간

www.kyungnam.or.kr

제400호 2014년 2월 25일 발행

신년회(덕경회 주관), 열기 속에 용마 비상 다짐 부산시장 후보 빅3 참석, 청마의 해 응비 기원 건배

재경동창회도 정기총회 겸 신년회 '2014년 자랑스런 용마상' 수여



본부동창회 신년 하례식에 부산시장 예비후보 빅3가 모두 참석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로 했다.

본부동창회가 주최하고 부산지역 상공계 동문들의 모임인 덕경회가 주관한 신년 하례회가 지난 2월 11일 저녁 롯데호텔 펠룸에서 송규정(16회) 덕경회장 을 비롯해 허법도 본부동창회장, 전재호

상부상조해 나감으로써 승승장구하도록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자"고 밝혔다. 송 회장은 덕경회와 같은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동창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결정적인 국면을 마주할

재경동창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
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이날 송규정
회장은 "지역 상
공계의 주역인
30회 이후 기수
동문들이 대거
참석해 매우 기
쁘다"고 말하고
"형제애로 둉쳐
가족적 분위기로

때일수록 모래알이 아닌 찰흙과 같은 응집력으로 더욱 결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허법도 본부회장은 "삼부요인을 포함하여 각계의 지도자를 배출한 모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의 산실이자 보고"라고 말하고 "청마의 해인 을해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용마의 비상이 실현되어 지역 사회와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회장은 "31회 이후 후배들이 용마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선배들의 지도, 후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하례회에는 오는 6월 지방 선거의 부산시장 출마 출사표를 던진 권철현(19회), 오거돈(21회), 서병수(25회) 동문이 모두 참석하여 약수 공세를 벌이며 열기를 더욱 달구었다.

한편 재경동창회는 2월 12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4년도 정기총

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2013년도 결산 보고와 2014년 예산 및 경발위 결산서를 승인하고, 김영표(25회) 동문 등 6명에게 '2014년 자랑스런 용마상'을 수여했다.

전재호 재경회장은 "취임 첫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소임을 무난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새해 활동 목표를 밝혔다. 전 회장은 "51회 이후 재경동기회 결성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젊은 기수들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본부동창회와의 교감을 보다 더 활발하게 전개, 각종 행사 및 모교 지원 업무를 결속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기금과 관련해 역량을 총동원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하고, 4대 명문고 합창제에 이어 3월 15일에 부산에서 4대 명문고 야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용마, 반상의 승자로 등극

고교동문바둑대회,
강호 휘문에 역전 우승
상금 500만원 전액 본부동창회 쾌척

용마의 기사들이 청마의 해, 갑오년 벽두에 화려하게
비상했다.

경남고 동문 기사(棋士)들은 1월 4일 서울 상암동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7기 YES24.com 배 고교동문전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휘문고를 꺾고 새로운 반상의 승자로 등극했다. 대회 첫 우승, 6전 7기의 쾌거였다.

예선을 거쳐 진출한 32강이 겨룬 이번 대회에서 경남고는 서울고, 덕수고, 대구 대건고를 파죽지세로 내리꺾고, 준결승에 오른 다크호스 경주고마저 가볍게 제압하며 지난해 준우승 팀인 휘문고와 결승에서 맞붙었다. 선수 3명이 출전해 초반, 중반, 종반을 나누어 퀸레이 대국을 펼쳐 3판 2승제로 승부를 가리는 고교동문전은 치열한 승부욕과 변화무쌍한 전략이 반상의 열기를 뜨겁게 하는 이색 기전이다.

퇴역 프로기사까지 가세한 바둑 명문 휘문고와의 첫 대국은 휘문의 승리, 이후 전열을 정비한 용마 기사단의 두 번째 대국부터 역전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

한편 용마기우회(회장 김대우, 29회)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원을 본부동창회 발전기금으로 전액 쾌척했다. 허법도 본부회장은 대회가 끝난 4일 저녁, 대표팀 단장 김진회(27회) 동문과 용마기우회장 김대우(29회) 동문을 비롯해 우리 선수 임강택(22회) 양시욱(25회) 이관선(28회) 육준원(28회) 강성훈(29회) 고승성(40회) 동문 등을 초대해 우승 축하연을 베풀었다.

〈관련 기사 10면〉



용마와 청마가 함께 비상하는 새해



분님들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의 영원한 모교는 자립형 공립고의 기반을 확립하는 뜻 깊은 한해를 알차게 장식하였습니다. 학업성적과 함께 대학 진학률도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와 그 맥을 함께 해 온 우리 모교는 72년의 역사에 걸맞게 각계의 결출한 인재를 배출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신장하여, 폭넓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그야말로 지덕체의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영국의 이튼스쿨,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등 세계적 명문에 비견될 만한 전통과 영예를 쌓아 한국의 사랑, 나아가 아시아

자랑스러운 경남중학교, 경남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의 대표적 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우리 용마가족들의 자부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돈독한 우애와 일치된 결속으로 각별한 애교심과 애국심을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 사랑의 의지를 결집해, 6.25 참전 전몰 애국동문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만세에 길이 전할 <성찰의 집>을 우리 젊음의 본향인 보교 교정에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달리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자랑스럽고 거룩한 공간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엄숙하게 역사를 반추하고 다짐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데려서, 젊은 날 우리 가설계했던 청운의 포부를 오롯이 간직한 모교 덕형관이 마침내 자랑스러운 국가문화재로 지정, 등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교는 이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명실공이 명문의 조건을 두루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교동문 바둑 대회에서 내로라하는 전국의 명문

들을 누르고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뜻을 함께 하시고 힘써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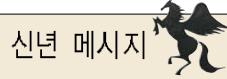
새해에도 우리가 풀고 성취해야 할 과제와 목표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오로지 모교의 영원한 발전과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집중되어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부단하게 힘을 모아야 할 사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각종 동창 회합에 동참하여 모교 사랑, 동창 사랑, 후배 사랑을 실천해 나갑시다. 특히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자랑스러운 재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당당한 선배가 됩시다.

모교 경남중, 경남고를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동문을 대표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용마가족 여러분!
새해는 푸른 말이, 명도에 날고뛰는 용마와 함께 비상하는 청마의 해입니다. 다 같이 푸른 꿈을 안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미래로! 세계로!

갑오년 원단

경남중고동창회 회장 허 법 도



신년 메시지 후배들은 모교 빛낼 밑거름



사랑하는 용마 동문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모교는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선도함으로써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마 동문들이 보여준 불굴의 개척정신과 탁월한 성실성,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은 미래의 용마 후배들이 훌륭히 성장하여 모교를 더욱 빛내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교가 그 전통과 명성을 확고히하고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이 되는 학교로 성장하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마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교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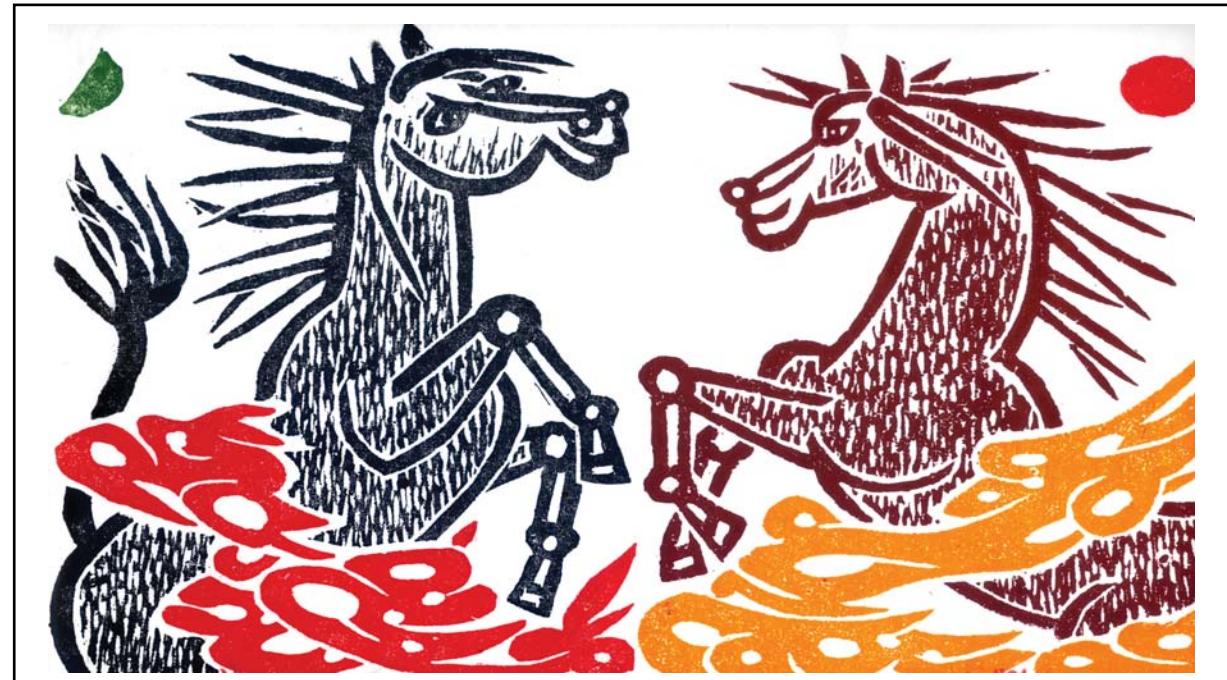
다시 한 번 우리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용마 동문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양승태(20회)

회보 발행이 늦어져 사과드립니다

동창회보 편집진이 교체되면서 400호 발행이 지체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동창회보는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울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편집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보 편집실



서양화가 박윤성(24회) 동문의 목판화 <용마청마>

일월성신이 보우하는 가운데 수려한 구름 위로 용마와 청마가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신년 시〉

蓬山不語已年暮

봉래산은 말이 없고 베이는 저울구나

法水寒燈德寺鐘

보수천가 차기운 등불에 구덕사 종소리가 와 달네.

先牽後追馨門禮

선배가 풀고 후배가 미는 덕형 동문의 예의니

午年必賜青馬騰

갑오년에는 필히 청마가 나는 것을 보겠네.

昔年煩事隨雲去

지난 해 번잡한 일들은 구름 따라 가버렸고

渡風王春梅信動

불어올 불바람 따라 왕춘(설날)의 매화꽃 소식도 들겠네.

新年門家富康溢

신년 덕형 동문 가정마다 부귀건강이 넘쳐라!

馨庭籟松今古同

옛 교정에 이는 솔바람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靜坡 이양훈(28회) 謹撰

※ 이양훈 동문이 신년시를 한시로 지어 보냈다. 이동문은 한국방송 피디로 일했고, 지금은 울산소설가협회장과 울주문화원 이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신년 하례회 이모저모〉

예비후보들은 “내가 적임자” 좌중은 “선관위원장 계신다” 재경회장단 참석,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기싸움



신년회의 뉴아시아퓨전양상을 초청 공연

덕경회가 주최한 2014년 신년회에는 본부 임원을 비롯하여 이길상(6회), 장혁표(8회) 원로동문과 전재호 재경회장, 구본홍(20회), 전 기독교tv 사장) 부회장, 최재범(18회), 한진중공업 부회장) 동문 등의 재경동문과 울산광역시장 박맹우(25회)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회장인 전재호 재경회장은 “동창회 행사로 서울과 부산,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다니느라 본업을 잊고 사는 듯하다. 신분은 안 끌고 경남중·고등창회에만 다닌다고 기자들의 불평이 여간 아니다”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그래도 기쁘고 보람된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장후보 빅3 조우, 유세장 방불

이날 신년회는 특히 부산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빅3’가 용마동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의 조우 현장과 벌언 등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대거 출동해 플래시를 터뜨리는 바람에 한때 후보자 기자회견을 무색하게 했다.

서병수 동문은 일찌감치 참석해 테이블을 돌며 약수 공세를 펼쳤고, 행사 직전에 모습을 나타낸 권철현, 오거돈 동문도 뒤질세라 만면의 미소와 약수 세례를 아끼지 않았다.

행사 진행 시간 관계로 사회자가 제공한 단 1분간의 인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이 부산시장 적임자임을 강조해 본선 유세장을 방불케 한 것.

예정된 일정 관계로 먼저 마이크를 잡은 서병수 예비후보는 “선배들과 겨루려니 매우 힘이 든다”고 짐짓 ‘막내의 업실’을 부리며 동정을 호소면서도 동창회는 자신을 ‘지명’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권철현 예비후보는 자신이 도시문제를 전공한 학자임을 강조하고, 2002년 부산시장 선거 때, 애석하게 본선 진출이 좌절된 전례를 상기시키며 캐치 플레이저인 “아름다운 세상, 따듯

한 동행!”을 건배 구호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오거돈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는 저한테 돌아올 표가 없음을 잘 안다”는 ‘알쏭달쏭한’ 벌언으로 좌중의 폭소를 유도한 다음, 세 후보 중에 중간 기수인 자신이 “딱 좋겠다”며 은근히 지지를 호소했다. 직전 회장답게 ‘출석 잘하자! 회비 잘내자!’를 건배 구호로 내세웠다.

선관위원장 면전에서 선거법 위반해?

부산시장 후보 빅 3가 한자리를 하고 있었던 탓에 행사 초반 분위기는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되었다. 건배 제의에 나선 동문들은 한결 같이 용마 출신 부산시장을 강렬하게 기대하면서도 누구를 낙점할지에 대해서는 일체 할구.

전 부산대 총장 장혁표 동문은 “이번에는 동문 가운데 시장이 나올 모양”이라고 전제하며 “싸우지 말고, 험한 소리하지 말고, 멋지게 겨루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률 고문은 자신이 추진하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언급하며 “남북종단의 시발점은 부산이다.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부산이 세계 교통망의 중심이 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본홍 재경부회장은 자신이 1996년에 ‘경고를 살리자’고 불을 지핀 장본인이라고 소개하고 “청마의 해인 올해는 용마의 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결속을 강조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평소 재담가로 이름난 KNN 사장 이만수 동문이 장식. 그는 “이 자리에는 당연직 부산시선거 관리위원장인 윤인태 부산지법원장이 참석하고 계신다”며 예비후보들의 선

거법 위반 위험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면서도, “나는 회사 직원들한테 되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말한다”고 말해 참석 동문들은 배꼽을 잡고 폭소를 터뜨리기도. 또한 선관위원장인 윤인태(30회) 동문도 “선거 관리는 법대로 엄격하게 집행된다”고 ‘대포’를 한방 쏜 다음,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하고 “유권자들은 올바르게 투표해서 나라 발전의 기회를 다져 달라”고 점잖게 당부해 박수를 받았다.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찬사 쏟아져

이날 신년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은 울산광역시장 박맹우(25회) 동문. 울산시장 3선 연임으로 이번 지방선거 이후 퇴임하는 박맹우 동문은 전국 지자체 단체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단체장으로 뽑혀 일약 전국적 지명도를 거머쥔 차세대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라섰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빅3는 저마다 박 동문의 치적을 추켜세우며 자신들도 존경 받는 목민관이 되겠노라고 목청을 둑우었다. 향후 거취가 주목되는 박 동문은 “그동안 동문들의 지도와 협조 덕분으로 무사히 소임을 마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용마동문 모두의 비상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깜짝 방문한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은 본회와 경남여고동창회의 우호 관계를 역설하고, 김지홍(49회,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사무관) 동문이 자신의 아들임을 누차 강조하며 자신도 넓은 의미의 용마가족 일원으로 신년회에 참석했다고 재선 도전 의지를 불태웠다.

용마골프대회 51개조 196명 참가

단체 우승 25회, 준우승 20회



본부 동창회 주최 제15회 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가 지난 11월 18일 부산 금정구 선동 소재 동래 베네스트 골프 클럽에서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 단체전에서는 25회 선수들이 231타(3명)로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235타로 20회가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단체 개인전 우승은 이수호(20회) 동문이, 개인전 A조(1~26회)는 강창수(21회), 개인 B조(27회 이후)는 김현오(42회) 동문, 여성부에서는 김정원님(23회 박인권 동문 부인)이 각각 우승했다.

이날 대회는 196명의 참가자들이 51개

조로 나뉘어 오전 10시 30분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에도 많은 동문들이 협찬금품을 지원하여 원활하고 성대한 대회를 치룰 수 있었다.

본부 덕형포럼 개최



제21회 본부 덕형포럼(회장 정량부. 17회) 조찬 모임이 지난 11월 13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 김기섭(30회, 부산대학교 총장) 동문의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개와 역사학의 지향'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1월 15일에 개최된 22회 포럼에서는 박석환(28회, 전 주 영국 대사) 동문의 '한국 외교의 환경과 이해'란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제23회 포럼은 3월 19일(수) 오전 7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박군철(24회, 한국원자력 대학교 총장) 동문의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임형규 동문, SK텔레콤 부회장 정도현 LG 사장 등 30회 재계 동문 약진



임형규 (26회) 정도현 (30회)



삼성전자 고문인 임형규(26회) 동문이 SK텔레콤 ICT 부회장으로 내정되었다.

임 동문은 지난해 11월 23일 대한전자공학회 정기총회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로 2013년 대한전자공학대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 받은 2천만원은 전액

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계 동문들의 승진, 영전도 잇달았다. LIG넥스원 사장 이효구(24회) 동문이 대표이사 겸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LG전자 전무이던 강태길(28회) 동문이 LG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LG전자 CFO 부사장 정도현(30회) 동문이 (주)LG 사장에 취임했고, 삼성생명 부사장 안민수(30회) 동문은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또 동성하이켐 대표이사 양석모(30회) 동문은 동성화학 대표이사에, LG전자 상무 박세우(30회) 동문은 LG전자 중남미지역 대표 겸 파나마 법인장에 취임했다.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 서준희(26회) 동문은 유임됐다.

“정시 합격 비중 높아졌다”

모교 대입 현황, 300명 가까이 4년제 진학

모교 졸업생 300명 가까이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부산지역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대학은 5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 박원주 진로진학부장은 올해 대학 진학 추세가 “정시 지원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서강대(30회) 교장은 올해 3학년

에 진급하는 재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예년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밝히고, 특강을 강화해 학습 의지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대학별 합격 현황: 부산대 22명, 부경대 30명, 한국해양대 10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각 1명), 성균관대 4명,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각 3명) 한양대 5명, 중앙대 7명, 경희대 4명, 동아대 62명, 경성대 37명, 동의대 49명.

박성조 동문, 독일 대십자훈장

민간인 수여 최고 훈장, 한국인 학자로는 최초



마파엘 독일대사가 박성조 동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종신교수 박성조(9회) 동문이 독일 대십자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 2월 1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독일정부를 대표하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박 동문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독일정부는 박 동문이 한독 양국간 공동 연구, 유학생 파견, 공동 학술회의 개최 등 양국 학술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했다.

대십자공로훈장은 독일정부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부산 기장 출신인 박 동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보훔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으며, 보훔대 동양학부 학장, 베를린자유대 사회과학부 학장을 거쳐 동양인 최초로 베를린자유대 종신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박 동문의 부인 메히틸리드 여사와 서해량 경구회 회장 등 9회 김경희, 김기준, 권영대 동문을 비롯하여, 허범도 본부회장, 전재호 재경회장, 고석명, 이상택, 조규향, 구본홍, 김용찬 동문 그리고 변창구(24회) 서울대 부총장, 정운찬 전 총리, 이달곤 전 안행부장관 및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생인 송복 교수와 박우희 교수 등이 자리를 같이하여 서훈을 축하했다.

〈관련 기사 15면〉

박운대 동문, 경무관 승진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취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박운대(32회) 동문이 경무관으로 승진,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에 부임했다. 박 동문은 지난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를 수습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등 대민 및 인사 분야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서울 서부경찰서장을 지냈으며 현직 경찰 용마 가운데 만행이다.

「동기, 지역 · 직능 · 동호회 회장 및 국장들께서는 동기 및 회원 분들의 참석 독려 부탁드립니다.」

2014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1. 이사회

- 일 시 : 2014. 3. 27(목) 오후 6시
- 장 소 : 부산 코모도호텔 2F 희락정(051-466-9101)
- 대 상 : 회장단 및 이사, 동기회 회장 및 지역 · 직능 · 동호회장

2. 정기총회

- 일 시 : 2014. 3. 27(목) 오후 6시 50분
- 장 소 : 부산 코모도호텔 1F 그랜드볼룸
- 대 상 : 전 동문

지령400호 기념 특별 기고

경남중고동창회보여, 영원하라!



경남
중고동
창회보
지령
400호
의 발간
을 진심
으로 축
하한다.

우리
회보는
선후배
라는 종

적인 관계를 횡적으로 엮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가 바로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업중한 소명을 감당해 왔다.

계속성이야말로 회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이다. 그동안 단절없이 꾸준하게 간행되던 우리 회보가 리드 그룹의 실수로 '결간'이라는 긴 공백을 겪었음은 옥에 티가 아닐 수 없다. 회장이 임기 중에 도중하차한 9회부터 시작된 회보 제작 기피 현상은 19회 이용희 회장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종식되었다.

읽고 싶은 회보, 기다려지는 회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회보 스스로 권위를 잃는 실수는 되풀이 하지 말도록 명심해 주기를 당부한다. 제때에 발행되고 신뢰받는 회보가 되어야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 영원한 멘토 정동식 선배

정동식 (1회) 선배는 필자의 영원한 멘토였다. 그이를 소개해준 사람은 고향 선배인 박찬욱 씨였다. 당시에 박찬욱 씨는 동창회장 김택수 (1회) 의원의 비서관이었다. 수산대학 학생회장 출신인 박비서관은 서울을 범위 조직 위원회 경기 국장과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체육진흥 공단 상임고문을 지낸 분으로, 유도 7단의 건강한 체구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인재였다. 강릉에서 교사 생활을 접고 상경하여 취직한 회사의 사무실이 마침 김 회장의 청진동 사무실과 가까워서 박비서관을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인연으로 정동식 회장과 김택수 회장 그리고 최재구 (3회) 부회장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동창회를 이끈 걸출한 선배 세 분을 만났으니 여간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던 1965년 시월 어느 날이었다. 김택수 회장도 함께 자리였는데, 정동식 재경회장이 느닷없이 "니, 오늘부터 총무다!"라고 '선언'했다. 동창회와의 '50년 세월'은 막무가내로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때 필자의 나이가 서른, 김택수 회장은 마흔, 그리고 정동식 회장은 서른아홉이었다.

모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정 회장은 독

서방이 대단했고, 독특한 카리스마에 지성적이었으며 조직적 사고방식까지 갖추어서 '초년병 총무'를 거칠없이 암도 했다. 그이는 고려대 법대 3학년에 재학할 때 6.25전쟁이 터지자 주저없이 해병대 장교 3기로 참전한, 말 그대로 역전의 용사였다. 총무무공훈장까지 받은 예비역 해병 중령이었으니 말이다.

정 회장한테서 자기자랑치레는 들어본 일이 없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간단 없이 나왔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No!"라고 하는 법이 없었다. 항상 "스타디하라!"였다. 나에게 내린 지침은, "첫째, 원칙을 지켜라, 둘째, 확인, 확인, 확인하라, 셋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생활인이 되라"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동창회는 회원명부조차 없었다. 황무지 같았다고 하면 지나칠까? 논리적인 원칙을 세워 조직과 운영을 체계화하고, 살아 있는 공동체로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요구되었다. 교사 시절에 소그룹 활동을 지도할 때 활용했던 '팸플릿'이 떠올랐다. 정 회장에게 동창회보 창간을 건의했다. 역사를 담은 그릇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1967년 3월 10일, 지금은 롯데호텔이 들어선 중국식 당 아서원에는 김택수 회장이 초청한 조선일보 사회부장 장정호 (1회) 선배를 위시해서 기라성 같은 현직 기자 15명이 자리했다. 정동식 회장과 경무관이던 서재근 (3회) 선배도 함께 했다. 그날 일기에는 그렇게 많은 언론계 종사 선후배를 알게 된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다.

장정호 선배가 나에게 물었다. "기사는 누가 쓰노?" "네, 당연히 현직 기자들이 써 주셔야지요." "자금은 있나?" 그 물음에는 정동식 회장이 대답했다. "광고로 충당하면 충분하다"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흐른, 1968년 2월 28일 하오 6시, 종로 한일관에서 개최된 재경동창회 임원회에서 정기간행물 창간을 결의했다. 그리고 5월 21일 국제호텔 (지금의 KAL 신관 자리)에서 회보 발간 출정식 겸 축하회도 가졌다.

파티가 끝나면 곧장 다동 삼덕빌딩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에 모여 창간호 제작 작업에 돌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축하회는 끝났지만 남아 있는 기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나홀로 사무실로 갔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취재 기사는 '서툰' 총무가 쓸 수 밖에 없었다. 서울에서 간행된 204호까지 기사 취재와 작성은 오롯이 필자의 몫이었다. 편집은 현직 전문 기자들이 수고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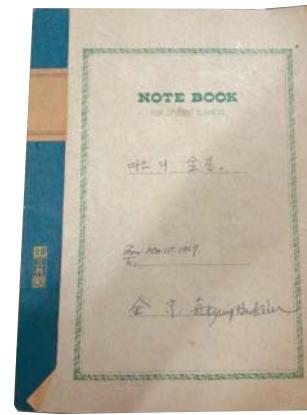
그동안 회보 편집에 배건섭 (9회), 故 안종필 (10회), 故 김종석 (10회), 이정배 (10회), 故 안철환 (13회), 이유곤 (13회), 강상대 (23회), 노상훈 (24회) 그리고 부산의 김형석 (16회) 등이 수고해 주었다.

김 경희 (9회, 본회 고문, 용마공영 회장)

차제에 한 마디 하고 넘어가자. 어느 동문이 필자더러 "김택수 회장 시절에는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회보 제작은 물론이고 동창회 살림을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봉사했다. 그러나 김택수 회장이나 정동식 회장으로부터 봉급 따위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음을 여기서 밝혀둔다.

■ '용마'의 기원과 회보 휘호

'용마'라는 단어가 회보에 등장한 것은 <용마춘추>라는 칼럼난이 그 효시다. 1968년 5월 5일에 열린 창간호 편집 회의에서 칼럼난 명칭을 결정하면서 시



김경희 동문은 동창회 살림을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비망록을 50여권을 남겼다.

작된 것이다. 실제 문장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남궁용식 (8회) 동문이 회보 제10호 <용마춘추>에 기고한 글에서이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71년 1월, 골프동호인 모임을 <용마회>로 정했고, 그해 11월 본부동창회 사무실에서 가진 재학생과의 좌담회 제목을 '우리는 지방 출신 용마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용마'는 경남중고의 상징이 되었고 낙네임이 되었다.

제호는 경남중고동창회보라 하고 휘호는 1회 선배들의 졸업 반 담임이셨던 시암 배길기 교수에게 칭했다. 정부 문서의 한글 전용이 법제화되고 각종 매체의 제호들이 저마다 한글로 바꾸었을 때, 일부 동문들도 동창회보 제호를 한글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최초의 휘호를 지키는 것도 전통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회보는 용마동문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다. 다달이 어김없이 간행하여 마침내 1977년 9월 지령 100호를 기록했을 때, 우리도 유래 없는 대기록에 놀랐고 다른 학교 동문들에게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다른 학교 동창회는 대부분 우리 회보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지도 요청이 쇄도했을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웃 부산과는 물론이고, 무궁화위성을 쏘아올리고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개척한,

경북고의 황보한 박사는 미국 유학을 떠나기 앞서 경북고동창회 부회장과 총무를 대동하고 내방하여 자문을 부탁했다. 진주고동창회의 경우는 모교 은사인 정회근 선생의 요청으로 도움을 주었다.

우리 회보의 독보적인 위상은 1975년 한국신문연구소가 폐낸 <한국신문백년사>에 동창회보로는 경남중고동창회보가 유일하게 등재된 사실에서 더욱 확고하다.

■ 배포 중지령과 수사기관 조사

1972년 10월, 이른바 유신헌법 개헌안이 발의되고 계엄령이 선포되자 본보는 배포 중지령을 받았다. 유독 우리만 제지를 당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되어 발행이 계속되었으나, 만일에 대비해서 1973년 5월 29일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했었다. 등록번호는 라-1688이다.

필자는 회보 기사 때문에 두 차례 나군 수사기관에 불려 조사를 받았다. 회보 92호 (1976년 12월 11일자)와 120호 (1979년 9월 13일자)를 발간했을 때였다. <어디서 무엇을>란에 군대 재직 동문의 동정을 실었는데, 배운 대로 '육하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것이 화근이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2항과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뼈나 무거운 '죄목'이었다. 이렇듯 동창회보는 불리한 여건, 열악한 조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명문 경남중고 동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지령 400호를 기록한 동창회보는 동창회의 역사와 주요 사건이나 동문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나침판 역할을 감당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 "용마 프라이드 지키는 청지기"

색 바랜 동창회보를 뒤적이다가 지령 200호 기념호 <등대불>란에 실린 필자의 글을 발견했다.

"긴 장정이었다. 경남중고동창회보 200호가 발행되었다. 68년 6월 1일 창간호를 내고 꼭 19년 3개월 만에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동문 상호간의 대화의 광장으로 창간된 회보는 뜨거운 동문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천후배간의 따듯한 정이 담긴 전령 구실을 성실히 수행해내었다. 20년 가까이 동문들의 조그마한 소식에서부터 장한 용마들의 얼굴과 굳세게 살아온 동문들의 발자취며 희비애락을 우리와 함께해온 반려자임을 입증했다. 특히 동문이라는 단순한 종족 관계를 횡적으로 엮어주는 엄청난 역할은, 동창회의 근간이 되는, 동기회 결성과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69년 창간 1주년을 맞아 조사, 집계한 통계를 보면, 소개된 동문이 2천 2백 26명이었고, 동기회 소식 64건, 인물 사진 2백 3장, 기타 사진 51매, 모교 소식 21건에 기별 자랑 12회 등 회보의 진가는 이미 입증되었다. 지난 20여년 동안 회보는 경남인의 긍지와 지성으로서의 기량을 동창회에 유감없이 접목시켜 주는 역할 또한 해내었다.

가령, 회보가 없었던 데 기별야구대회 <5페이지 계속>

“동창회보는 용마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동창회보는 나와 동갑내기다. 내가 1968년 시월에 태어났으니, 그해 6월에 창간된 동창회보는 나보다 넉 달 빠른 형이다. 동창회보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단 애덴공원에서 태어났다. 동창회보는 탄생 직후부터 ‘천상천하유아득존’이라고 당당하게 외쳤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동창회보에 결코 ‘쫄리지’ 않는다. 나도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애덴공원’에서 태어났으므로.

내가 그를 처음 만났던 것이 모교에 입학하고 나서 였다는 점에서 숙명적인 인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창회보와 처음 대면하였을 때, 그는 참 대단한 존재였다. 무엇보다 <어디서 무엇을>이라는 선배들의 소식을 읽으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무한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그저 입소문으로만 듣고 그려려니 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까지 막강하게 포진하고 계신다니, 동창회보는 나에게 ‘들이킬 수 없는’ 프라이드를 심어 주었다. 삼촌들과 외삼촌들 모두 부산고 출신이었

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개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멀리 미주 지역을 비롯한 해외 지역 동창회는 물론 국내 각 동기회 및 지역 동창회의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은 모두 회보의 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 첫 단추를 바르게 채워라!

창간호를 발행하고 200호를 간행하기까지는 19년 3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200호를 내고 400호가 나오기까지는 26년 5개월이 소요되었다. 7년을 날려버린 셈이다. 안타깝다. 반성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리드 그룹의 각성을 촉구한다.

완벽에 가까운 것은 이미 아이디어가 아니다. 문제의 제기로 삼아서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토의가 있을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역사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용마들의 지성이 모교 역사에 대한 정확한 記述과 혁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모교 역사에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것인지

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 부산고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동창회보가 내 생각을 확 뒤집어놓은 것이었다.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1996년 무렵 41회 동기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동창회 모임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찾기는 힘들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쟁쟁한 선배님들의 사랑은커녕 동문으로서 제자리도 얻지 못했으면 그때를 생각하면 먹먹하기도 하다. 물론 지금은 당당한 용마가족으로서 한 죽을 이루고 있다고 자부한다.

동창회보는 이제 용마가족 3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광장으로 성장했다. 우리들의 자리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동갑내기 동창회보와 평생 함께할 것이며, 내 아들손자는 물론이고 대대손손 함께 하리라고 굳게 믿는다.

선친께서 굳이 ‘훼밀리’를 상호에 부각하신 뜻을 나는 항상 깊이 새긴다. 강촌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신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

를 확인하고 싶다. 동창회보 200호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모교 50년사가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스크 포스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2012년판 <동창회원명부>처럼, 장사꾼에게 졸작을 주문하려 한다면 이는 수치요, 비극이다. 기대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부끄러운 현실을 역사는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나쁜 역사를 잊는 자는 그 역사가 반드시 반복하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두렵다. 지금이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무명의 월트 크롱카이트를 발탁하여 불세출의 TV 뉴스 앵커 맨으로 탄생 시킨 사람은 미국 CBS 보도국장 시그 미켈슨이었다. 아마추어 경력조차 없던 필자를 이끌어 창간호에서부터, 서울에서 제작한 마지막 회보인, 204호까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 고 정동식 회장에게 거듭 고마운 뜻을 표한다.

지난날 필자로 하여금 동창회 총무 노릇을 시작하게 한 열쇠는 동창회 보였다. 배고픔을 견디며 복음을 걸 다시피 바친 ‘순종’이 마침내 기적을 낳았다. 모자랄

지와 그리고 그분들의 아들 손자가 함께하는 것이 선친의 포부였다. 내 동갑내기 친구인 동창회보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나는 강촌훼밀리타운의 경영 모토로 “귀하가 강촌의 자랑이듯, 강촌은 귀하의 자랑이고 싶습니다”라고 내걸었다. 우리 동창회보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다.

“용마동문 여러분이 동창회보의 자랑이듯, 동창회보는 용마가족 모두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백 창봉 (41회)
강촌훼밀리타운 대표)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했다. 회보 제작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당부한다. 첫 단추를 바르게 채워라!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꾀테가 강조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한다. 3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지만, 생각이 마음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겠다. 그런데 더 긴 여행이 있다. 가슴에서 손발에 이르는 여행이다. 실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 둔재는 되지 말아야 한다. 게임기 제조업계의 절대강자였던 일본의 닌텐도는 지난 5년간 외부 환경이 얼마나 급변할지 전혀 깨닫지 못함으로써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게임기라는 틀에 갇혀 ‘모바일’을 놓쳤다. 내가 만든다는 독선이 빚어낸 결과이다. 게임 틀이 바뀐 줄도 모르고 결손하지 못한 그 오만의 종말은 예상외로 혹독했다.

기회를 잡는 데 민첩한 용마들이 되자! 그래야만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3,942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동창회보 구독료를 보내주신 동문은 3,942명입니다.

이분들의 정성이 모여 동창회보가 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령 400호를 기록한 경남중고동창회보는 <대한민국신문백년사>에 등재된 유일무이한 동창회보입니다.

동창회보를 받아 보시는 15,200여 동문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제21회 동기회 모교발전기금 모금 현황

강창수, 오거돈, 전재호 (1,000만원) 여환부, 전우성, 최원종 (500만원) 강수경, 김성환, 장호 (고)최현우
(300만원) 서덕수 (200만원) 강영도, 공기화, 김동우, 김한규, 김황세, 배영일, 변성인, 송원경, 송태형, 윤대희, 윤승근, 안채식,
이문수, 이재홍, 임경범, 정상인, 조호제, 최수명, 최재봉, 한대윤, 허영도, 황영실, (고)김홍진 (100만원) 강상태, 김상덕, 민한식,
배일, 양병주, 이익규 (50만원) 강순석, 김길중, 김부곤, 김영주, 김일곤, 김진경, 박자민, 변창섭, 성정근, 손원조, 옥동조, 육화원,
윤상철, 이순희, 이재택, 조병규, 조학래, 최경용, 한인환 (30만원) 김현기, 마상준, 이영상, 정길영 (20만원) 김영화 (10만원)

이상 64명 9,160만원

-동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춘 특별회견/송두호(3회) 본부 동창회 고문에게 듣는다

“YS를 동창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전두환 정권의 사찰과 협박, 세무사찰 두 번이나 당해



송두호 고문은 요즈음 부산에서 지내는 날이 많다. 자택 부근 광안리해수욕장에 나왔다.

동창회보에 나온 6.25 전쟁 참전 동문 명단에 송두호 고문은 없다. 그런데 그가 서울대 의과대 재학중에 참전해 노르웨이군 야전병원의 ‘군의관’으로 종군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의 열정과 의술에 대한 잠재력을 깨뚫은 노르웨이 군의관들이 그가 전쟁통에 의학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하여 원만하게 의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에 초청 유학을 건의하였으니 말이다. 외국 여행 비자조차 얻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던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특전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보건 당국은 매우 신중한 의견을 보냈다. 자국 어학연수 문제와 정규 의과대 수학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생 자격으로 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가 1970년대 초 오슬로대학교 의대에 유학, 연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야전병원 군의관들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만일에 그 난리통에 그의 노르웨이 유학이 성사되었다면 이후 그의 행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겠다. 세상이 아는 송두호는 크게 두 갈래다. 전설적인 신경외과 전문의 송두호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 송두호가 그것이다.

의료정책 비판하며 개업 의사편에 서는 원로 대부

역시 그는 지금의 우리 의료 현실부터 화제에 올렸다. 현업 의사들 대부분이 동의하듯이, 무엇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의 오랜 지론이다. 의료계 원로로서 걱정이 여간 아니다.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의과대학이 증설되었다. 그 폐해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최근 한 해 평균 900개 의원이 폐업한다. 마지막으로서 의대 입학생 수효만큼 폐업하게 될 것이다. 과거 미국은 의대 증설 정책을 피하고 외국 의사들을 불러들였다. 우리나라 의사도 가고, 필리핀 의사도 많이 갔지 않았나. 미국의 의사 수급 문제는 안정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요 의료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의료계의 의견이 양분되는 일은 자주 있었다. 원격진료나 부대 영리 사업 허용 문제는 결국 대형 종합병원은 수용하겠다고 하지만 중소 개업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좀 더 치밀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문을 닫아야 할 동네 병원들이 속출할 것은 불 보듯 환한 일이 아닌가. 더 많은 의료복지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위험한 길이다.”

그는 195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외과교실

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한 뒤, 1962년 부산 초량동에서 개업했다. 내과의원이 있던 건물을 임대하여 ‘송두호신경외과의원’을 열었다. 승강기가 없던 병원에서, 수술 환자를 계단을 통해 2층 입원실로 옮겨야 했던 고역을 지금도 기억한다. 그래도 승승장구했다. “서울에서 용한 의사가 왔다더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불과 몇 해 뒤에 번듯한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했다. 텅 빈 부산 중앙로 대로변에 들어선 그 건물은, 의사 송두호의 명성과 함께, 한동안 초량 일대의 ‘랜드마크’ 노릇을 했다. 송두호 이름 석 자는 명의의 대명사로 통했다.

국내 1호 척추 외과술 박사 논문, 합준대상도 수상

육칠탱년대까지만 해도 척추수술은 중환자한테도 두려운 것이었다. 그런 데도 그는 매일 수술하다시피 했고, 하루에 환자 세 명을 수술하기도 했다.

“한번은 소문을 듣고 있는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의사들 일행이 우리 병원을 방문했다.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을 들려보고 담론도 나눈 뒤에 그들은 나에게 ‘의과대학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라며 친사를 보내더라고. 나도 의과대학은 못하더라도 반듯한 학술재단 하나 만들어 후진들을 키워 볼 꿈은 있었지.”

그는 1968년 서울대 졸업식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한국인 요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연구>는 그가 서울대 신경외과학교실 시절과 개업 이후 시술한 500례에 달하는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척추 외과술에 관한 국내 제1호 논문이다. 명문대학의 생생한 교수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하는 한국신경외과학회 회장에 개업의사인 그가 추대될 수 있었던 것은 학술적 업적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2006년 서울의대동창회가 수여하는 합준대상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술하는 현직 국회의원, 집념과 자부심의 전문의

의사로서의 자신을 말할 때, 그는 한결 밝은 표정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일화를 소개해 보자. 수술실에서 일하는 현직 국회의원이 있을까? 물론 있었다. 국회 의원이 되고서도 그는 주말마다 부산으로 내려와 꼬박 수술실에서 보내곤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사는 교포까지 와서 수술해 달라고 사정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나. 주말이면 병원에 출근할 수 밖에 ... 심지어 급할 때는 스텝들을 지원받아서 서울대병원 수술방에서 수술하기도 했어. 아마 그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네? 그런데 수술 환자들의 예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수술 마치고 곧바로 서울로 와야 하니까, 환자 관리가 어려웠지. 그러니까 그만둘 수 밖에 없었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일흔다섯 까지는 의사로 일할 수 있었겠다”고 그는 지금 분명하게 말한다. 액면 그대로 쉽게 수긍할 수 없을지 모른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집념과 자부심, 의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리고 새삼, 그리하지 못했던 어떤 회한이 물씬 묻어나는 이야기로 들린다. 왜 그랬을까?

그는 개업 의사로는, 두 차례나 흑득한 세무조사를 받은 유일한 의사이다. 처음 당한 세무사찰은 1983년이었다. 그때 그는 김택수 전 회장의 타계로 본부동창회 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다.

“병원 세금은 국세청에서 병원 등급을 분류해서 등급에 따라 과세하는 기준이 있었고, 그렇게 시행했다. 일방적인 인정 과세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낸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시간 빼앗겨 가며 공무원들과 다투기가 싫었으니까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데 난데없이 세무조사를 한다고 들이닥쳐 진료기록 서류들까지 모조리 압수해 갔으니, 병원 문 닫아라는 소리가 아닌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 서울 외교 구락부에 가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명백한 탄압이므로 국제 사회에 알리겠다며 반발했다.”

평소 암전하다고 알려졌던 그가 외신 기자회견까지 하겠다고 나섰다면 사태가 얼마나 업중했는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칼자루는 5공 군부정권이 쥐고 있었다. 주위에서 그를 말렸다. “기분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참아야 한다. 이후에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 않느냐”며 가까스로 그를 달랬다.

세무사찰이라는 강압적 무기가 있을 줄 그는 짐작하지 못했다. 대형 종합병원에도 들이댄 적이 없었던 세무사찰을 일개 개업의원에 대해 휘두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당하고 보니 그의 뇌리를 때리고 지나가는 기억들이 줄을 이었다.

“계속 그러시면 보호해 드리기 곤란합니다”

“세무조사가 있기 6개월 전쯤에 아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자신의 병원에 와 보라고 해서 간 적이 있었다. 보안사 부산분실 정보과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비뇨기과 전문의와 토요일마다 저녁 식사자리에 회동하곤 했다. 세무조사반이 서류들을 압수해 간 뒤, 그 정보과장한테 전화를 했다.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능청스럽게 시치 미를 떴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이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 왔다. ‘부산지역에 장성급 장교가 7명인데 같이 골프 한번 칩니다’라고 하면서 100만원짜리 선물 7개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5공 실세로 거들먹이던 일부 후배 동문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압박했다. 화근은 동기동창 친구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분이었다. “왜 동창회 행사에 YS를 초청하느냐?”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다. 덧붙여서 “우리도 국회 의원인데 왜 홀대하느냐?”고 유파질렸다.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총재와의 관계를 끊고 동창회 행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협박이었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라는 압박이었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 나는 동창회장일 뿐이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YS는 동창회 고문 자격으로 초청했을 뿐이다. 또 당신네들을 양잡아 보거나 무시한 일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내가 당할 압력을 염려하여 YS가 나한테 전화로 ‘참석해도 되느냐?’고 물어온 적도 있었다. 동창회 고문인데 왜 참석하지 못하겠느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또 나는 동창회 행사에서 집행부와 주요 임원들만 단상에 자리 잡도록 했다. YS는 고문 자격으로 단상에 모신 것뿐이었다. 국회 의원이라고 아무나 단상에 앉도록 하자는 않았다. 기별 좌석에 앉으면 그만이지 않는가. 동창회는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5공 실세 동문들은 그의 ‘원칙’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고, 숫제 대놓고 협박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보호해 드리기 곤란합니다”라며 막가파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지령 400호 기념 특별 기고〉

‘한국 언론의 모세’ 동상을 모교 교정에 유일하게 옥사한 기자, 故 안종필 선배를 추모하며

권근술 (14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사장)



안종필 동문은 마흔셋 한창 나이에 태계했다. 사진은 ‘안종필 자유언론상’ 상판에 올린 생전의 모습이다.

올해에는 반드시 <안종필 평전>을 쓰겠다는 다짐으로 새해를 맞는다. 내 나이 일흔셋, 올해를 넘기면 그분 얘기를 영영 못 남길지 모른다는 강박증 비슷한 초조감이 나를 짓누른다.

안종필. 경남고 10회 선배.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한국 언론사를 통틀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옥사한 언론인이다. 그것도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실상 갑옥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유신 독재가 저지른 탄생”

안 선배가 이름 없이 역사에 묻히는 걸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서는 도저히 내 삶을 훌가분하게 정리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밤잠을 설친다. 적어도 모교교정에 동상 하나쯤은 세워 놓아야, 헌날 한국언론회관이나 광화문 한복판에 ‘한국 언론의 모세’ 동상을 건립을 논의할 단초가 마련될 게 아닌가. 일전에 모교 출신 신문 방송 기자들의 모임인 ‘용마펜클럽’ ‘신년 하례회 자리에서 안종필 선배의 동상 건립에 동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안종필-

그는 1980년 2월 29일 마흔셋 한창 나이에 태계했다. 서울대병원 영결식장에 모인 조객들은 “언론 부재의 광야 40년을 거쳐…이 나라 언론의 모세가 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 목사의 ‘증

언’에 함께 목이 폐었다.

“독재자 박정희가 살해되지 않았다면 필경 옥사했을 당신, 당신의 죽음은 유신 독재가 저지른 탄생이었습니다.”

동아투위에는 동문이 다섯 명

영결식이 끝나고 장지로 가는 차량들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안국동 로터리 부근까지 긴 행렬을 이루었다. 길 가던 사람들은 신문에도 나지 않은 이 거창한 장의 행렬을 의아해 하며 빌거리를 멈추었다. 선두의 영구차가 세종로에 이르러 동아일보사 앞에 멎었다. 조객들은 차 안에서 일어나 잠시 북님을 올렸다. 동아일보 사옥 앞 빙터는 발송 트럭으로 활강하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 건물 창밖으로는 옛 동료 얼굴 하나 비치지 않았다.

안 선배는 최후의 병상에서, 사실상 간병 담당인,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나는 우리를 쫓아낸 김상만 회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네. 그 역시 인간인 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우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명예가 아니라 저들의 명예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장의 행렬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장이었던 안종필 선배는 5년 전 올역이며 소리 높여 외쳤다. 1975년 3월 17일 미명의 새벽이었다.

“이제 봄은 비를 동아를 떠나지만 동아의 정통성은 우리와 함께 있다.”

각복과 산소용접기로 무장한 폭력배들에 의해 6일째 절약능성 중이던 편집국에서 발길에 걸어차이고, 주먹질에 얻어맞고, 조롱당하며, 1백30여 동료와 함께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순간이었다. 그날로 동아투위가 발족되었다. 이후 반년 동안 동아일보 사옥 앞에는 축출된 기자들의 항의 도열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서울 푸른 유신 치

하의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중인 환시리(衆人環視裡)에 유신에 저항하는 ‘기이한’ 시위가 6개월여 벌어진 것이다. 안 선배는 언제나 맨 앞에 서 있었다.

도열 현장에는 김경희(9회) 선배와 동기생인 김용찬(10회) 선배가 안 선배 등 의 안위가 걱정되어 매일 한 차례 다녀갔다. 안 선배의 절친인 김용찬 선배는 동아투위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명예 투위원’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동아투위에는 다섯 명의 동문이 있었다. 안 선배와 김대은(12회. 일간 건설회보 주간) 선배, 그리고 나(14회)와 이종덕(17회. 전 국제신문 사장) 강정분(18회. 전 대통기획 사장. 작고) 후배였다. 초창기 동창회보의 편집을 도맡았던 안 선배는 김택수(1회. 전 국회의원. 작고) 선배가 정동식(1회. 전 재경동창회장. 작고) 선배를 통해 ‘촌지’를 “생활비에 보태 써라”며 우리들에게 나눠준 기억이 새롭스럽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

이에 앞서 1974년 10·24자유언론실천선언 당시에도 편집부 차장이었던 그는 데스크로서는 드물게 자유언론운동에 앞장섰다. 세계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광고탄압’ ‘백지광고’ ‘격려광고’로 상징되는 유신과 언론의 결전의 시기에도 편집국 간부들을 부추겨 자유언론운동의 지지 성명을 끌어낸 것도 안 선배였다.

유신의 폭압이 절정으로 치달던 1977년 안 선배는 동아투위 위원장직을 흔연히 맡았다. 그것은 어려운 결단이었다. 실직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틀거리리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는 약국을 하는 아내에게 돈을 타내어 후배 기자들과 소줏잔 나누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는 단 한 차례도 자유언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았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1979년 가을 투옥됐다. 신문과

방송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민생 관련 사건들을 모아 <민주인권일지> 제하의 유인물 뮤음을 만든 것이 긴급조치 9호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법정에 서서도 그는 예의 파란의 웃음을 젊지 않았다.

“사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듣고, 자유롭게 보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면 결국 미쳐 버리고 맙니다.”

밖에서는 후배 기자들이 그를 친형처럼 따랐듯이, 옥중에서도 교도관들은 그를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며 깍듯이 모셨다.

‘행복한 죽음’ 뒤엔 조라한 묘소만 남아

1979년 10·26이 나고 그해 12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안 선배는 다시 동분서주했지만 곧바로 간암 진단을 받는다. 병실 밖은 ‘80년 서울의 봄’이 무르익고 있었고, ‘5월의 광주’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찌 보면 그의 죽음은 “꼭 죽어야 할 자리와 꼭 죽어야 할 때를 받은, 차라리 행복한 죽음이었다고나 할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마침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으로 있던 고창순(5회. 작고) 선배가 만행처럼 의료와 장의 준비를 챙겨 주었다.

안 선배가 세상을 떠난지도 어언 34년. 이제 ‘자유언론 투사’의 옥사는 역사에, 망각에, 둔화에 간다. 해마다 민주·자유 언론에 기여한 저널리스트나 언론단체에 시상하는 ‘안종필 자유언론상’ 상판에 ‘안종필’이라는 이름 석자가 남았고, 일산 기독공원묘지의 두어 평 남짓한 조라한 묘소엔 오늘도 찬바람만 인다.



권근술 동문의 올해 소망과 목표는 <안종필 평전>을 간행하는 일이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글은 1969년 6월, 당시 동창회보 편집위원이던 고 안종필 동문이 회보 창간 1년을 맞아 칼럼난인 <용마춘추>에 기고한 유고이다. [편집자]

공자께서 ‘德不孤 必有鄰’이라고 했다. ‘덕’은 고독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의 벗이 있다는 말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업연한 진리로 터득했을 때는 역사를 알게 되고, 그 역사 속에 명멸한 술한 인간상을 알게 된다. 창조의 시련 - 바로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한 떨기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기까진 토양 속에 박은 무수한 뿌리와 태양과 수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겨우 내 줄기를 보관해온 정성의 보람일 것

이다.

오는 7월 21일 미국에서는 아풀로 11호가 세 우주인을 태우고 달에 착륙을 시도한다. 달에 첫발을 디디는 것은 태고적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순간이다. 태초의 신비가 세 우주인이 가지고 올 달의 암석을 분석함으로 밝혀질지는 모르나, 달 착륙은 1950년대 이후 美蘇의 치열한 우주 경쟁 속에 수많은 인류의 지적 모험과 땀의 결정임은 분명하다.

동창회보가 발간된 지 벌써 1년. 회

보를 거친 동문이 무려 2천명을 헤아린다니 회보 편집을 맡은 한 사람으로 무척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 동문 대가족의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화려한(?) 경력으로 지면을 장식해온 동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졸업 후 사회의 응달에서 동창회를 지켜보며, 또는 모교의 발전을 면밀히 기도해온 동문도 무수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회보에 <어디서 무엇을>란을 고정시키고 편집 방향의 최대 역점을 두어야 했으며 지금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화은 情의 가교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화로 옛 정을 다시 새겨 쟁막한 사회생활에 훈김을 불어넣어야겠다. 그리고 전 동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공동 광장을 구축하기 위해 편집이나 취재 방향을 새로운 각도로 다시 반성해야겠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
@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부용마합창단 단원 모집]

두드려야 열립니다!

노래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감을 느끼는 동문은

일단 오십시오.

건강에도 좋습니다.

어울려서 부르는 노래는 더욱 좋습니다.

"노래는 좋아하는데 콩나물대가리를 잘 몰라서..." 라며 망설이는 동문들께는

"콩나물대가리가 콩나물에 붙어있는게 보이면 됩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입시공부에 매몰됐던 우리들 동문들은

모두가 어슷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이 곧 합창이고 노래이며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입니다.

일단 문을 두드리십시오!

두드려야 열립니다!

-16회 이철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초딩시절 심한 말더듬으로 항상 주눅들었던 나였지만,

중2 때 합창단의 테너로 선발된 것을 계기로

말은 더듬어도 노래는 정상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고교 때는 중창멤버까지 될 수 있었다.

대학교수로 정년퇴임까지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학창시절 합창부를 통한 열등의식 극복에 있었으니,
54년 만에 다시 합창단 참여는 고맙고 행복할 뿐이다!

더더욱 6월5일 용마음악의 밤 공연 때 피아노반주를
중학교 은사이신 이지구선생님께서 해주신다니
그 반가움에 가슴이 저려온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노년에 활력충만을...!!!

-18회 안창범-



I단원 명단 I

16회 이철수 (전)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 · 17회 정량부 (전)동의대 총장 · 18회 안창범 삼세한방병원 원장 · 20회 안재상 성소건축 대표 · 21회 오거돈 해양연맹 총재
22회 강봉기 이순치과 원장 · 22회 김도살 D&H CORP 대표 · 22회 안진환 (전)동부산대학 학장 · 24회 강창덕 솔로몬서치 · 이사 24회 한승철 법무사
26회 김태규 법무사 · 27회 이요섭 경남중학교 교장 · 28회 안 풍 인쇄마당 대표 · 29회 김종명 부산일보 이사 · 30회 서강태 경남고등학교 교장
31회 고영호 산부인과 원장 · 31회 김태근 대한노인회복지사업단 본부장 · 31회 류명석 경민T&M 대표이사 · 31회 박종건 세광 본부장 · 31회 최봉근 할매횟집 대표
33회 서길원 용마E&C · 33회 임석빈 한국웰탑 대표 · 39회 김대중 아이에스 상무 · 39회 김병기 동우비지니스솔루션 대표이사 · 39회 안승진 국제사 대표
39회 안영준 센텀메디컬 상무 · 39회 오충현 씨허브 대표이사 · 40회 이 기 일신산전 이사 · 40회 한수열 여행스토리 대표 · 44회 김경진 KNN방송 MC
44회 김승희 계명대학교 성악과강사 · 44회 안병규 승원조경건설 · 44회 우도균 개인택시조합 · 45회 최용호 창원시립합창단 · 47회 김치훈 창원시립합창단
47회 조성빈 창원시립합창단 · 47회 최지훈 창원시립합창단 · 49회 이현명 현대라이프 서면지점 · 50회 김석훈 미래에셋생명 · 51회 이시원 김천시립합창단
52회 김정균 창원시립합창단 · 53회 최동환 대명리조트

|광고 협찬| 17회 정량부 / 18회 안창범 / 20회 안재상 / 22회 안진환 / 28회 안풍 / 29회 김종명 / 31회 고영호 / 39회 안영준 / 40회 이 기 / 49회 이현명

|입단 문의| 경남중고동창회 본부용마합창단 단장 17회 정량부 ☎010-8553-8040 / 부단장 28회 안풍 ☎010-4558-8211

본부용마합창단 창단

지휘 이철수(16회) · 단장 정량부(17회) 매주 화요일 오후7:30~9:30 부산시민회관에서 정기연습
2011년 재경용마합창단 이어 2번째 동문합창단 6/5(목) '용마음악의 밤' 합동공연 참가



재부 동분들로 구성된 경남중고동창회 본부용마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지난해 12/12(목) 경남중학교 시청 각실에서 17명의 동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가진 본부용마합창단은 1/7(화) 첫 연습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7:30~9:30 부산시민회관 4층 연습실에서 해오고 있으며, 지휘자 이철수(16회 · 前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자)동분과 단장에 정량부(17회 · 前동의대 총장)동분을 중심으로 하는 임원조직을 갖추고 있다.

본부용마합창단의 창단은 재경용마합창단의 성공적인 활동소식을 접한 오거돈(21회) 정량부(17회) 이철수(16회)동분의 공동발의에 따른 것으로, 재경용마합창단은 2011년 창단 이후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정기공연 등으로 큰 호평을 받아 왔으며, 지난 달

1/26(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부심십포니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에 재경 부산지역 4개 고교동문회(경남고부산고 경남여고 부산여고) 연합합창단의 일원으로 협연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본부용마합창단은 오는 6/5(목)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용마 음악의 밤' 행사 때 재경용마합창단을 비롯 경남고합창단 및 경남중년타임과 함께하는 합동공연 참가를 목표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60~100명의 단원확충을 위해 재부 동분들의 적극적인 단원가입을 바라고 있다.

본부용마합창단에는 현재 43명의 동분이 가입돼 있다.

■본부용마합창단 Daum 카페 :
[Daum 카페] 찾기에서 [용마합창단]
검색 클릭.

'용마음악의 밤' 공연준비회의 개최



오는 6/5(목) 개최하는 '용마 음악의 밤' 공연준비를 위한 회의가 지난 1/22(수) 경남중학교 교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재경용마합창단 김지호(18회)단장을 비롯 이종순(18회)부단장 배공내(18회)지휘자 김재민(20회)총무 박완수(23회)재무와 본부용마합창단 이철수(16회)지휘자 강창덕(24회)총무 안풍(28회)부단장 인영준(39회)기획부장 및 본부동창회 황유명(29회)사무총장과 경남고 김기수(30회)행정실장 경남중 김종규(31회)행정실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재경용마합창단에서 마련한 기획안 설명청취에 이어 수정보완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획안의 주요 골자는 ■본부동창회 재경동창회 경남고 경남중 공동주최와 본부용마합창단 재경용마합창단 동동주관

■본부용마합창단 재경용마합창단 경남고합창단 경남중년타임 동문음악가 남성여고동문합창단 합동공연 ■동창회보의 기사와 광고를 통한 홍보와 협찬접수 ■예산 55,500,000원 등이며, 수정보완의견으로 ■영상축하인사 축소조정 ■균형예산을 넘어 흑자예산 추진 ■공연의 정례화 등이 개진되었다.

공연준비회의는 앞으로도 공연직전까지 매월 개최할 계획이며, 2차 공연준비 회의는 이달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다.

'용마 음악의 밤' 공연문의

재경용마합창단 총무 김재민
☎ 010-3876-9858
본부용마합창단 부단장 안풍
☎ 010-4558-8211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통합전인치유 시스템 안양 G생병원 진료팀

경기도 안양 G생병원(이사장 이상택, 13회 재경 고문)은 항암제 중심으로 시행되어온 기존 암 치료 방식의 틀을 깨고 '통합전인치유 시스템'을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동맥내 항암치료(국내 유일)와 복막 전이암 환자들에게 복강경을 이용해 복막에 직접 고온의 항암제를 뿌리는 치료법을 개발해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효산의료재단 이대희 대표는 이상택 동문의 아들이다.

"불씨는 지폈는데, 불길은 아직..." 용마합창단 지휘자 이철수 동문



본부동창회 합창단 창단은 오거돈 직전회장과 전동의대 총장 정량부 동문 등이 추진해온 작업이다. 재경 합창단 창단 소식에 자극을 받아 그동안 창단 필요성은 동문 사이에 간단없이 제기되었으나 이 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난산이 예상되던 창단 작업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공연에 촉발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용마합창단 지휘자 이철수 동문과 재경 용마코러스 단장 김지호(18회) 동문의 적극적인 해후가 바로 그것.

이철수 동문은 "조선일보에 서울에서 경남고, 경기고, 부산고, 서울고 동문 합창단이 용산아트홀에서 합동 공연을 한다는 기사를 읽고 가슴이 쿵쿵뛰었다. 갑개무량하게 공연을 관람했고, 거기에서 김지호 단장과 지휘자 배공내(18회) 동문을 만났다. 지휘자 품귀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며 매우 반기워하면서 본부합창단 창단 작업

을 부탁했다. 그렇게 하여 12월 3일 본부동창회 사무실에서 정량부, 오거돈 동문을 포함한 본부 동문들과 김지호 단장이 만나 발기모임을 갖기로 하고 즉석에서 밴드 결성과 문자 발송을 통해 30여명의 동참을 확보했다"고 저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동문은 창단식을 마치자마자 <폐기의 추억> 등으로 곧장 연습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6월 공연에 모교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남고에는 합창반을 부활시키고, 경남중에는 기존 타악기 연주팀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마합창단은 모교 합창반과 난타팀 연습 비용을 지원했다.

"불씨는 지폈는데 아직 불길이 타오르지는 않고 있다"며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이철수 동문은 "서울에는 용마코러스를 비롯해서 경기고, 서울고, 부산고 등 남성합창단이 다수여서 공연 활동이 원활한데 비해 부산에는 용마합창단 말고는 남성합창단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다. 부산고동창회 관계자들에게 합창단 창단을 주문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안타까워했다.

벽안의 한센인 지킴이 유의배 신부 제3회 이태석봉사상 수상자



제3회 이태석봉사상은 벽안의 유의배 신부에게 돌아갔다.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장호)는 경남 산청군 성심원 유의배(69세, Uribe, Luis María) 신부를 선정, 1월 13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 유 신부는 스페인 게르니카

출신으로 1980년 성심원에 부임해 33년 동안 한센인들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세 번째 영예를 누렸다. 유 신부는 임종이 임박한 한센인들의 곁을 지켰으며, 사망한 한센인들의 염습과 입관 등 장례를 도맡아 왔다.

이태석봉사상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다 대장암으로 숨진 부산 출신 신부 고 이태석(31회) 동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봉사활동 지원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동기회소식

〈10회〉 총회 겸 송년회

지난 12월 27일 중앙동 소재 흥문집에서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지고 신임 회장에 최병도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12회〉 산우회 200회 기념 산행



지난 11월 10일 금정구 온천동 쇠미산에서 회원 17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용마12산우회 200회 기념 산행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산행 후 연산동 새마을식당에서 의미 있는 자축연도 가졌다.

〈14회〉 총회 겸 송년회

지난 12월 30일 동구 수정동 소재 협성부페에서 40여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신임 회장으로는 1월 10일에 가진 고문단회의에서 통과한 한규환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17회〉 총회 겸 송년회



지난 12월 20일 프라임관광호텔에서 50여명의 동기 및 동기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송년회를 열었다. 이 형우 동기회장이 연임하기로 하였다.

〈18회〉 송년회

지난 12월 11일 수영구 민락동 씨사이드 뷔페에서 100여명의 동기 및 동기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김길제 동기회장의 인사말이 있은 후 만찬과 노래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회〉 송년회



지난 12월 12일 터존 뷔페에서 동기회 송년 모임을 가졌다.

〈25회〉 송년회

지난 12월 11일 영빈회관에서 30여명의 동기들이 모여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27회〉 송년회

지난 12월 31일에 60여명의 동기생들이 모인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1부 저녁식사는 용호동 소재 더뷰 뷔페에서 가진 뒤, 2부는 부산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야음악회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28회〉 총회 겸 송년회



지난 12월 9일 해암 뷔페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신임 회장에는 구영소 동문, 사무국장에는 조광제 동문이 선출되었다.

〈29회〉 송년회

지난 12월 11일 광안리 소재 진미회관에서 3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송년회가 있었다.

〈30회〉 총회 겸 송년회

지난 12월 6일 4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신임 회장에는 최우철, 신임 국장에는 황철민, 노치훈이 선출되었고, 우홍제, 흥인기 국장은 유임하기로 하였다.

〈31회〉 송년회



지난 12월 12일 삼성컨센션홀에서 3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가 있었다.

〈32회〉 송년회

지난 12월 3일 수정동 협성뷔페에서 40여명의 동기 및 동기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가운데 송년회가 있었다.

〈36회〉 송년회



지난 12월 19일 '임씨네 돼지갈비탕' 밀면(임창의 동기 경영)에서 30여명의 동기생들이 모인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37회〉 송년회



지난 12월 10일 수정회관에서 30여명의 동기생들이 모인 가운데 송년회가 있었다.

〈41회〉 정기 모임

지난 12월 6일 남포동 소재 오아제 시푸드 뷔페에서 4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43회〉 정기총회

지난 12월 5일 남천동 소재 시골통돼지볶음에서 40여명의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박형규 동기회장이 연임하기로 하고, 총무에는 김기봉, 감사에는 김성수 동문이 선출됐다.

지역, 동호회소식

〈사하지역동창회〉 정기총회



지난 12월 5일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강촌훼밀리타운에서 200여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가졌다. 신임 회장에는 진양호(34회, BSS 아카데미영어학원장) 동문이 추대되었고, 사무국장에는 임창섭(36회, 에이스 투어 대표) 동문이 선임되었다. 직전회장 류명석(31회, 경민 T&M 대표) 동문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지난 11월 9일 금정구 소재 금정산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단합대회를 가진 바 있다.

〈용마회〉 정기총회



공무원 재직 동문들의 모임인 용마회(회장 마창수, 30회)는 지난 12월 19일 국제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용마산악회〉 정기총회

지난 2월 7일 중구 총무동 소재 오아제 뷔페(24회 임철호 동문 운영)에서 50여명의 동문과 동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신임 회장에 박성철(29회, 법무법인 정인 대표변호사) 동문, 총무에 김세정(35회) 동문을 선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지난 4년간 회장으로 수고한 박수갑 동문과 오기목 전 산행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한편 용마산악회는 지난 12월 8일 용호동 이기대에서 2013년을 마무리하는 낙회산행을 가졌다.

〈용마언론인클럽&우리들 만남〉 연합 모임



지난 11월 14일 남포동 소재 오아제 시푸드 뷔페에서 우리들 만남(회장 박창호, 24회)과 부산울산경남 용마언론인클럽(회장 이만수, 28회)의 연합 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17회 강호일(전 부산일보 논설주간) 동문부터 50회 박병규(KNN 미술감독) 동문에 이르기 까지 무려 34년의 기수에 걸친 노장청 동문 44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리들 만남은 지난 1월 9일 범일동 소재 감포가자미에서 월례모임을 가졌다.

〈울산지역동창회〉 용마의 밤

지난 12월 16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용마의 밤 행사를 가졌다. 정갑윤(23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울산시 중구) 동문과 박대동(23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울산시 북구) 동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창원지역동창회〉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



지난 12월 12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용마의 밤을 성황리에 마쳤다. 신임 회장 한원우(26회) 동문의 취임식도 함께 거행되었으며, 사무국장에는 조시형(34회) 동문이 유임됐다.

〈대구지역동창회〉 송년회

지난 12월 13일 북해 반점에서 열린 송년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첫 행사로서 부부 동반으로 즐거운 여흥과 함께 우의를 다졌다.

〈해운대지역동창회〉 송년 모임

지난 11월 28일 해운대 예담(38회) 김근홍(동문 경영)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뜻 깊은 송년 모임을 가졌다.

월 23일에는 예담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모임을 가졌다. 다음 모임은 3월 20일(목)이다.

〈덕형리그〉 33회 우승



지난 11월로 4회째를 맞이한 덕형리그(회장 박상호, 26회)에서 33회가 36회를 17대 13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33회, 준우승:36회, 3위:40회, 41회.

☆감독상:박상국(33회), 최우수선수상:이윤조(33회), 최우수투수상:김종욱(33회), 미기상:장창용(36회), 감투상:장의석(36회), 타격상:1위 김원철(38회), 2위 양성욱(41회), 3위 이성대(40회), 수훈상:김광태(28회), 주연월(29회), 박창표(34회), 허부남(37회), 임태영(40회), 뮤지컬(41회), 공로상:이종운 전모교 야구감독

한편 덕형리그는 12월 13일에 가진 모교 야구부 신입생환영회 및 감독 취임식에 100만원을 후원했다. 모교 야구부에 1,000만원 후원을 목적으로 펼치는 덕형리그는 3월 1일 모교 운동장에서 제5회째를 맞는 2014년 시즌을 개막해 1년간의 장정에 돌입한다.

어디서 무엇을…

<3회>

△**하덕모**=「알기 쉽고 과학적인 와인 교실」출판. TEL:031-713-1559

<9회>

△**김경희**=재경동창회 고문. 뒤늦게 결혼한 작은딸 진원이가 1월4일 귀여운 딸을 낳았다고 싱글벙글! 축하합니다. △**김기관**=경구회 총무. 부인 간호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경구회를 위해 내조했던 부인께서 꽤 유하시길 기원합니다. △**김기준**=전 (주)현지 회장. 일본에서 있었던 집안 행사에 참석코자 1월15일 출국하여 1월29일 귀국. △**김종대**=단국대 명예 교수. 지난 해 12월1일 태국으로 출국, 2월 말에 귀국 예정. △**유금열**=경남도 지방 행정동우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회원의 친목도모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동중임. TEL:010-2585-5342 △**유병철**=전 울산성심병원장. 양지요양 병원장으로 읊기다. TEL:011-419-6411 △**허남수**=2월1일에 싱가포르로 1개월 예정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부부가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차상구**=(주)동양수산 회장. 부산에서 다시 상경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 2동 아름마을 삼호아파트 401동 201호로 이사. 031)558-5408 / 010-2321-1707 △**윤치덕**=전 한일은행 부장. 용마코러스에 입단. 지난 1월26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신년음악회에 출연.

<11회>

△**이정기**=지병으로 의식불명상태에서 민락동 소재 정다운요양병원에서 요양중

<12회>

△**김춘광**=9월28일 장남 결혼, 센텀리더스웨딩. △**엄태섭**=11월24일 부인상, 부산의료원

<13회>

△**권영채**=12월8일 모친상, 괴정병원 △**양봉준**=1월9일 모친상, 울산시민장례식장

△**이규재**=11월4일 모친상, 대동병원 △**허종철**=11월27일 모친상, 안산중앙병원

<14회>

△**조연제**=12월11일 빙모상, 서울보라매병원 △**조상원**=10월24일 모친상, 해운대백병원 △**황원재**=1월10일 모친상, 분당요한성당

<15회>

△**장수웅**=10월25일 모친상, 인창병원

<16회>

△故 **김광세**=11월30일 딸 결혼, 마리아쥬스퀘어 △**박기용**=11월30일 에세이문예 작가상 수상, 수필 '동명상과 바이러스' 최우수 작품 당선.

<17회>

△**김동조**=12월1일 차남 작고, 동의의료원

<18회>

△**김만근**=12월28일 차남 결혼, 메리움 금강컨벤션웨딩홀 △**김병수**=10월31일 모친상, 인양장례식장 △**우원호**=2월15일 장남 결혼, 누리엔 웨딩홀 △**하영일**=11월23일 차남 결혼, 대한통운 웨딩홀

<19회>

△**권철현**=전 일본대사, 2월14일 출판기념회, 부경대 체육관 △**손철수**=12월4일 차남 결혼, 여의도 교원공제회관 △**이시성**=12월26일 빙모상, 동의의료원 △**정승수**=1월11일 차남 결혼, 창원 더웨딩하우스 △**황호균**=2월14일 아들 결혼, 신라호텔

<20회>

△**고세훈**=12월28일 장녀 결혼, 중림동 약현성당 △**노기태**=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2월27일 출판기념회,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강서구청장 출마 예정) △**목일진**=1월14일 모친상, 수원 성빈센트병원 △**박재봉**=12월1일 장남 결혼, 방배동 누리시아 △**박천웅**=박지오로 개명 △**백창렬**=11월30일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신용완**=12월15일 차남 결혼, 더 하우스 △**신철수**=2월10일 모친상, 형남상, 삼성서울병원 △**이상익**=2월16일 차남 결혼, 해운대 센텀호텔 △**이영오**=1월12일 형남상, 서울성모병원 △**조상진**=11월16일 장녀 결혼, 르네상스 호텔 △**진주환**=2월23일 장녀 결혼, 뉴힐탑호텔 △**황경선**=12월18일 빙부상, 해운대백병원

<22회>

△**김창호**=11월16일 장녀 결혼, 63빌딩 △**정진식**=2월16일 장녀 결혼, 프리미어웨딩 △**하인수**=12월7일 아들 결혼, 이룸웨딩컨벤션

<23회>

△**김길수**=12월7일 차남 결혼, 피에스타 귀족 △**목대관**=1월14일 모친상, 수원성빈센트 △**박대동**=국회의원, 2월27일 출판기념회,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3월3일 울산북콘서트,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박종만**=12월22일 빙부상, 여의도성모병원 △**박철수**=12월17일 빙모상, 인창병원 △**서상중**=2월7일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송충송**=11월30일 장녀 결혼, 그랜드애플 △**신경재**=2월15일 빙모상, 서울의료원 △**신성욱**=12월8일 차녀 결혼, 해군호텔 W웨딩홀 △**신수병**=12월21일 장남 결혼,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신원종**=12월8일 차녀 결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이강식**=12월14일 장녀 결혼, 여의도침례교회 △**이동성**=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 원장, 10월26일 장남 결혼 △**이상운**=1월11일 딸 결혼, 샌디에고 △**이성기**=1월2일 모친상, 창원시립상복공원 △**전영돈**=2월3일 빙모상, 이대목동병원 △**정명식**=12월14일 장남 결혼, 더 베네치아 △**정인근**=11월30일 차남 결혼, 엠플러스컨벤션웨딩

<24회>

△**정영석**=부산시 동구청장, 2월20일 출판기념회, 동구청 대강당

<25회>

△**강재태**=12월21일 장남 결혼, 스칼라티움 △**곽동원**=12월31일 빙부상, 아산병원 △**김동철**=3월15일 장남 결혼, 더 브릴리에 △**김옥권**=1월4일 장녀 결혼, 헤리움웨딩 △**김진우**=1월19일 장남 결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문재인**=국회의원, 2월22일 이들준용군 결혼, 서울 혜화동성당 △**박건욱**=12월29일 부친상, 삼신장례식장 △**서병수**=국회의원, 1월17일 출판기념회, 베스코 컨벤션 △**안수영**=12월14일 장녀 결혼, 법원종합청사 △**안희석**=11월30일 장남 결혼, 해운대센텀호텔 △**윤진호**=12월8일 장남 결혼, 헤리움웨딩 △**이계성**=1월11일 장녀 결혼, 위스콘신주 밀워키 △**장홍석**=12월12일 부친상, 정재활요양병원 △**정호성**=12월22일 장녀 결혼 △**전상태**=2월22일 장녀 결혼, 부산문화회관 △**최영관**=11월10일 차남 결혼, 오토웨딩홀 △**최일태**=12월1일 빙모상, 해운대백병원 △**탁관로**=11월17일 장녀 결혼, 엠플러스컨벤션

<26회>

△**권종대**=1월11일 장모상, 부산영락공원 △**김영식**=12월1일 아들 결혼, 울산 MBC컨벤션 △**김재용**=1월11일 장녀 결혼, 해운대 노보텔엠버서더호텔 △**노영석**=2월14일 모친상, 경찰병원 장례식장 △**서준희**=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 유임 △**박경재**=한영외국어고 교장, 2월27일 출판기념회, 베스코컨벤션(부산시 교육감 출마 예정) △**박권병**=11월28일 장인상, 남천동성당 △**박동기**=12월15일 빙모상, 시민장례식장 △**박성주**=12월21일 장남 결혼, 더 케이서울호텔 △**서치호**=2월13일 차녀 결혼, 엘타워 △**오성익**=12월11일 빙부상, 해운대백병원 △**이동수**=12월15일 차남 결혼, 에버2000웨딩홀 △**이병옥**=2월16일 장남 결혼, 포시즌 △**이순철**=2월16일 장남 결혼, 해운대 마리나컨벤션 △**이종형**=2월13일 빙부상, 고신의료원 △**이학기**=1월11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임철수**=2월22일 아들 결혼, 포시즌코리아웨딩 △**정승규**=11월16일 장녀 결혼, 에버2000웨딩홀 △**정재영**=12월21일 장녀 결혼, 임피리얼팰리스호텔 △**최영수**=3월2일 장녀 결혼, GS타워 △**한원우**=창원지역동창회 회장 취임

<27회>

△**강성보**=11월23일 장남 결혼, 한국프레스센터 △**권명보**=12월14일 장남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김상룡**=2월7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김일리**=12월7일 장남 결혼, 남천동성당 △**김용섭**=2월22일 차녀 결혼, 좌동성당 △**김주호**=1월23일 장모상, 부산의료원 △**김현수**=1월8일 부친상, 부산영락공원 △**김홍채**=11월30일 장녀 결혼, 노블레스웨딩컨벤션 △**박원구**=12월10일 모친상, 부산서호병원 △**박이달**=2월14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배용한**=1월19일 장녀 결혼, 여의도웨딩컨벤션 △**서상호**=2월7일 모친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오영두**=11월30일 장남 결혼, 라쿠치나 서울대점 △**이기우**=전 부산시 부시장, 3월7일, 창원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유근**=12월14일 딸 결혼, 엘타워 △**이인규**=1월11일 장남 결혼, 헤리움웨딩 △**조훈제**=12월7일 장남 결혼, 창원컨벤션홀 △**차승일**=11월7일 부친상, 한양대병원 △**최성하**=2월4일 빙모상, 한국병원

<28회>

△**김명수**=12월22일 장녀 결혼, 코엑스 △**김부윤**=11월23일 장남 결혼, 해운대 센텀호텔 △**김상정**=3월15일 아들 결혼, 에버2000 △**김용덕**=11월26일 모친상, 진해 세광병원 △**김용희**=12월14일 장남 결혼, 서면 헤리움웨딩 △**김창수**=10월30일 모친상, 해운대백병원 △**김평일**=3월15일 아들 결혼, 이태 원블루스퀘어 △**김홍종**=11월16일 차녀 결혼, 타임스퀘어 △**김하원**=1월18일 장녀 결혼, 더 청담옥상층 △**노영현**=12월7일 장남 결혼, 조선비치호텔 △**박영규**=11월16일 딸 결혼, 헤리움웨딩 △**박진화**=1월19일 장녀 결혼, 헤리움웨딩 △**안재홍**=11월18일 모친상, 영락공원 △**이성형**=2월9일 아들 결혼, 사이언스파크웨딩홀 △**이종태**=12월21일 장녀 결혼, 국제신문빌딩 △**이진우**=11월30일 딸 결혼, 서초동성당 △**장기용**=2월15일 차남 결혼, 컨벤션밸리지움 △**장재용**=1월4일 장녀 결혼, 그랜드호텔 △**정점득**=3월15일 아들 결혼, 엘타워 △**황행수**=2월11일 부친상, 부산전문장례식장

<29회>

△**김기수**=1월11일 장녀 결혼, GS타워 △**김대영**=1월8일 빙부상, 부산대학병원 △**김대욱**=12월22일 장남 결혼, 신라호텔 △**김문수**=12월26일 모친상, 침례병원 △**김한근**=1월18일 장모상, 강남삼성병원 △**노승환**=1월25일 장녀 결혼, 파티오나인 △**박경환**=12월17일 빙모상, 괴정동산병원 △**박국인**=2월8일 장녀 결혼, 63컨벤션센터 △**박병태**=1월11일 장남 결혼, KW컨벤션센터 △**박성철**=1월12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서영배**=11월29일 장남 결혼, 노블밸런티 △**신용인**=1월14일 빙모상, 새벽종소리 명성교회(호주) △**양승오**=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이사 취임 △**윤형근**=2월2일 빙부상, 현대아산병원 △**이상용**=1월11일 장남 결혼, 광주 라페스타 △**이상진**=2월22일 장녀 결혼, 헤리움웨딩 △**이순원**=2월23일 빙모상, 부산대학병원 △**이영춘**=1월10일 모친상,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병학**=1월3일 모친상, 분당서울대병원 △**정성표**=2월22일 장녀 결혼, 맨하탄웨딩컨벤션 △**조대제**=12월14일 장남 결혼, 육사회관 △**한기준**=1월11일 빙모상, 충남대학교병원 △**한용호**=2월10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실력만 따져서 선수 선발했다”

예스24배 바둑 우승 일궈낸 김진회(27회) 단장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바둑에 미련을 떼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고시보다 프로 기사 입단이 훨씬 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예스24배 고교동문전에 용마기사단을 이끌고 사상 첫 패권을 따낸 김진회(상지E&A 부회장) 단장의 코멘터리 곳곳에도 그 지난(至難)함과 털어놓지 못할 회한이 묻어나는 듯했다. 일찍이 기별 바둑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여러 차례 용마국수에 올랐던 그 이지만, 예스24배 우승은 특별하고 값진 것이었다. 특히 그가 복기한 우승 요인은, 순발력을 겸비한, 매우 치밀한 심리전의 개가라고 할 만큼 흥미롭고 또 유별나다. 그는 “특히 서울팀들은 우리를 압잡아 보려는 의도를 일부러 드러내며 흔들리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 전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었다. 가볍

게 보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 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결승에 오르기까지는 결코 패배는 없다고 다짐하고 또 확신했다”고 말했다.

출전하기 전에, 그는 우승을 생취하면 5회 대회부터 맡았던 단장을 그만두리라고 작정했다며 그간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승부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런 저런 사정을 구실로 출전을 꺼리는 동문들도 적지 않았다. 저마다 형편이 고만고만한데도, 출전 경비마저 선수들이 충당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까지 허벌도 본부회장의 독려와 후원이 크게 작용하였다며 감사했다.

“단장의 독단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상호간의 친소 관계나 출입 기수, 기우

회 기여도 등은 배제하고 오직 실력만 따져서 선수를 선정했다. 우리팀은 에이스 조합의 필승조였고, 바로 그게 강력한 승부수였다.”

그는 선수 선발 과정에서 ‘외압 배제’라는 원칙을 사수했다고 말했다. 어느 팀이든 선후배로 진용을 짜노라면 ‘하고지비’들이 나서기 마련이고, 거기에 휘둘리다 보면 낭패 보기 십상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서로 출전을 꺼리는 것이 바로 강팀의 필요조건이라는 것. 용마팀은 이 조건에 충실했고, 실전에서도 적중한 셈이다.

용마바둑은 강철민(11회. 작고) 양건모(14회. 작고) 백홍수(14회. 5단) 동분 등 프로 기사 3명을 배출했고, 김기준(12회. 대통령비서실장) 동분은 한국기원 부이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농심 신라면배를 창설한 박준(20회. 농심 사장) 동분과 대주배 시니어기전을 열며 바둑 영화 <돌>을 제작하기도 한 본부 동창회 기우회장 김대욱(29회. TM 마린 대표) 동분 등이 용마바둑의 전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상 첫 바둑대회의 승자로 부상하던 순간, 김단장은 흥용찬(16회) 전 재경동창회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승 소식을 누구보다 더 기뻐할 당사자가 흥동분이었기 때문이다. 용마바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정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는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로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투병 중이다. 흥용찬 동분은, 우승의 영예를 안겨 준 예스24배 고교동문전과 한세실업 배대학동문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한세실업 김동녕 회장과 서울대 상대 동기동창으로서 사업 파트너이자 바둑 파트너이기도 하다.

은사 김계곤 선생 별세



저명한 한글학자이며 모교 은사인 김계곤 전 학교학회 회장이 2월4일 오전 1시 향년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선생은 부산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2년 모교 국어교사로 부임하여 1961년까지 용마동문들을 지도·양성했다.

고인은 한글 맞춤법과 방언학의 권위자로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쳐 <국어학 강의> <한글 맞춤법 풀이> <우리말, 글살이의 바른 길> <알벗, 글벗, 한벗> 등 많은 논문과 저술을 남겼다. 특히 선생은 2005년 12월, 국경일에서 폐지된 한글날이 15년 만에 부활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고 허웅 선생의 뒤를 이어 한글학회 회장 겸 이사장을 역임했다. 선생의 유해는 6일 경기도 파주시 청아공원묘지 유택에 안장되었다.

원로가수 이동휘 동문 타계

예명 남강수로 더 잘 알려진 이동휘(11회) 동분이 3월3일 오전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8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5년 ‘백마강 길손’으로 데뷔해 지구레코드 전속가수로 활동하며 ‘향수의 야간열차’와 ‘사랑의 종착역’ 등 인기 대중가요 70여 곡을 발표했다. 1987년에는 가수 김활선 씨와 듀엣 ‘죽마고우’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30회>

△고석주=11월13일 빙부상, 서귀포 한빛 장례식장 △김관일=1월11일 장녀 결혼, 울산 성원 쌍떼 빌레이컨벤션 △김남권=11월17일 빙부상, 인천 성모병원 △김영주=11월23일 딸 결혼, 부산 가야성당 △김정옥=1월11일 장녀 결혼, 여의도 웨딩컨벤션 △문화원=KT 부산네트워크 운용단장 승진 △박성중=11월9일 딸 결혼, 뉴힐튼호텔 △박영웅=12월3일 부친상, 부산 온종합병원 △박진명=1월6일 모친상, 삼성의료원 △박재근=11월1일 모친상, 서울 베스트병원 △배경조=2월9일 장녀 결혼, 팔레스호텔 △신인기=1월28일 부친상, 영도구민 장례식장 △유창렬=11월26일 부친상, 대동병원 △이기환=1월11일 장녀 결혼, 대연동 산성교회 △이무환=1월17일 부친상, 포항제일장례식장 △이배원=2월22일 장녀 결혼, 엠플러스컨벤션웨딩 △이영일=12월28일 부친상, 삼성의료원 △이철호=11월24일 장남 결혼, 메리움 금강컨벤션 △임규영=11월12일 빙모상, 영락공원 △전병삼=3월2일 장녀 결혼, 팔레스호텔 △정재동=2월9일 장남 결혼, 더케이 서울호텔 △한의녕=11월30일 장녀 결혼, 워커힐호텔 △허유=2월20일 모친상, 서울아산병원

<31회>

△김상수=11월21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박영섭=1월17일 모친상, 동의의료원 △이원장=11월3일 장녀 결혼, 헤리움웨딩 △천성엽=11월3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홍기수=2월14일 빙모상, 강동경희대병원 △홍정표=2월22일 장녀 결혼, 쉐라톤 인천호텔 △황우찬=1월23일 모친상, 한

서병원

<32회>

△박종석=12월13일 부친상, 한서병원 △이창남=1월20일 빙부상, 영락공원 △정현옥=12월28일 장남 결혼, 더뷰웨딩홀

<33회>

△박영배=11월13일 부친상, 동의의료원 △백홍문=12월1일 장남 결혼, SK리더스 △임명제=2월5일 부친상, 삼신 장례식장 △조영대=12월5일 부친상, 괴정 별일 병원

<34회>

△김민근=2월3일 부친상, 산보람병원 △이재완=3월16일 장녀 결혼, 서면 롯데호텔 △정성근=2월13일 빙부상, 고신의료원 △정홍기=11월16일 모친상, 부산장례식장 △허윤모=1월12일 빙부상,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허진훈=2월19일 부친상, 부산장례식장

<35회>

△김기철=2월3일 모친상, 부산장례식장 △나동욱=2월24일 빙부상, 울산영락원 △이영오=12월3일 부친상, 해운대백병원 △이종택=2월4일 빙모상, 영락공원

<36회>

△주찬구=11월3일 모친상, 부산성모병원 △채성태=11월14일 빙부상, 신촌세브란스

<37회>

△박찬영=11월2일 빙모상, 부산의료원 △신창호

=12월6일 빙모상, 광양 옥곡 장례식장 △이춘우=2

월16일 빙모상, 영락공원 △유재영=11월9일 빙부상, 좋은강안병원 △최기영=12월21일 빙부상, 동아대 병원 △하주용=12월4일 부친상, 부산대병원

<38회>

△김성호=11월30일 부친상, 동산병원 △우창수=12월1일 모친상, 포항 제일장례식장 △이태훈=2월20일 빙모상, 효경 G병원 △정인철=11월23일 모친상, 인창병원

<40회>

△이강욱=2월15일 본인 결혼, 우리컨벤션웨딩홀 △이현호=10월31일 부친상, 아산병원

<41회>

△강병오=2월13일 빙부상, 삼신 장례식장 △옥동길=2월6일 부친상, 시민 장례식장 △홍석우=11월5일 모친상, 동의의료원

<43회>

△김상현=1월9일 부친상, 한중프라임장례식장 △김신현=1월7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김정남=11월20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김태형=1월1일 빙부상, 성모병원 △박경곤=11월26일 부친상, 인창병원 △박경석=(박경순 개명) 2월12일 모친상, 부산대병원

<45회>

△유세환=12월6일 부친상, 인창병원

<47회>

△김세준=10월31일 조모상, 안양 장례식장

인물동정

한준석(3회) 재경 고문 덕형포럼 두 번째 강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비서관과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한준석 동문이 1월 8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경덕형포럼(회장 정희원) 조찬 모임에 연사로 참석해 ‘눈물로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재경덕형포럼은 2월 12일, 2월 연사로 모델로피부과의원 원장 서구일(38회) 동문을 초청, 조찬모임을 가졌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보톡스클리닉 담당의사(부교수대우)를 겸하고 있는 서 동문은 2003년 세계 최초로 CT를 이용한 보툴리움 사각턱 교정술 치료효과를 규명하는 등 국내 보톡스 역사를 대표하는 의료인으로 꼽힌다.



이성대(12) 아들 故 이수현 13주기

일본 도쿄 신주쿠 구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의인 이수현 씨의 부친인 이성대 동문이 1월 26일, 부인 신윤찬 여사와 함께 아들의 13주기를 맞아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 동문 내외는 JR동일본 측이 마련한 추모대에 헌화하고 아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수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LSH아시아장학재단, JR동일본 관계자들은 예의를 갖춰 동문 내외를 안내했다.



성상철(21회) 대한정형외과학회 신임회장

성상철 전 서울대 병원장이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성 동문은 오는 10월까지 학회를 이끌게 된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성 동문은 대한병원협회장을 맡아 병원계 발전에 헌신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협회 명예회장과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박군철(24회) 서울대 학군단동문회장 박군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총장이 서울대 ROTC동문회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역임한 박 동문은 지난해 12월 정기총회 겸 회장 이취임식에서 전임회장인 강실근(23회) 동문으로부터 동문회기를 불려받았다.

이현국(24회) 미술인의 날 ‘본상’

이현국 경희대 도예학과 교수가 12월 5일, 2013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공예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도예를 전공한 이 동문은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장, 서울미술협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영표(25회) LX대한지적공사 사장

김영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LX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동문은 서울대 공대를 나와 국토연구원 1기로 입사해 기획경영본부장, GIS(지리정보시스템) 연구단장, GIS연구센터장,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형규(26회) 전자공학대상 수상

임형규 현 SK텔레콤 ICT부회장(전 삼성전자 고문)이 11월 23일 대한전자공학회 정기총회에서 2013 대한전자공학대상을 수상했다. 임 동문은 34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공로로 수상했다. 반도체 사업 영역을 넓혀 플래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개척한 점도 높은 평가



김종수 총장 취임

연세대 명예교수 김종수(14회) 동문이 지난 12월 1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내과학 교수로 부임하여 연세대 월주캠퍼스 교무처장, 의대 학장, 부총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이 대학 재단인 학교법인 의암학회 이사장은 푸르밀 회장 신준호(14회) 동문이다.



이대호 동문, 또 피칭머신 기증

연세대 명예교수 김종수(14회) 동문이 지난 12월 1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내과학 교수로 부임하여 연세대 월주캠퍼스 교무처장, 의대 학장, 부총장을 역임하고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이 대학 재단인 학교법인 의암학회 이사장은 푸르밀 회장 신준호(14회) 동문이다.



20억 원(약 203억 원)의 거액을 거두고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이적한 ‘대한민국 4번 타자’ 이대호(55회) 동문이 모교에 최신형 피칭머신과 야구용품을 회사했다.

이 동문은 “추운 겨울에 손을 녹여 가며 베풀을 던지는 후배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지난 2011년에도 2000만원 상당의 피칭머신을 모교에 기증한 바 있다.

를 받았다. 상금 2천만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했다.

김경민(27회) 우주과학소통상 수상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1월 30일 나로호 로켓발사 성공 1주년을 맞아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항공우주국의 ‘우주과학소통상’을 수상했다. 정치외교학자로는 드물게, 김 동문은 몇 차례 위기에도 불구하고 발사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발사성공에 일조했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한 평가를 받았다.

박병주(27회) 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박병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지난해 6월에 열린 제11차 국제 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 학술위원장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공로로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민기(27회) 사립대 교련 이사장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가 6만여명의 전국 사립대학 교수들이 회원인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새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동문은 숭실대 교수협의회 의장과 대학평의회 의장, 사립대학 교수연합회 이사로 활동해 왔다.



허남건(29회) 대한기계학회 회장

허남건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2월 1일 대한기계학회 제5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허 동문은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



티븐스대에서 유체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영훈(30회) 고려대 안암병원장

김영훈 고려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장이 1월 2일 고려대 안암병원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다스 사이나이병원 부정맥 연구소에서 펠로우를 지냈다. 국내 최초로 심방세동을 치료하기 위한 전극도자질제술을 도입하고 부정맥센터를 개설했다. 독창적인 수술법을 개발해 부정맥 분야 아시아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해승(33회) 합동군사대부장

이해승 해병 준장이 합동군사대 학 전투발전과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동문은 해사 37로 임관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연합사 계획과장, 해병대 사령부 기획관리부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과시해 왔다.



정인창(37회) 법무부 법무실장

정인창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전보됐다. 정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했다.



허찬(37회) 남대문경찰서장

허찬 경찰기동대 제2기동단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허 동문은 경찰대학 4기 출신으로 충남 아산 경찰서장, 학안보 기획단장, 국회경비대장을 역임했다.



〈영전 및 인사이동〉

- 김종수(14회) = 서울여자간호대학원 총장 취임, ← 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김영표(25회) = LX 대한지적공사 사장 취임, ← 전) 국토연구원 연구핵심본부장
- 서준희(26회) =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사장 유임
- 임형규(26회) = SK그룹부회장 취임, ← 전) 주) 삼성전자 고문
- 강태길(28회) = LG전자(주) 부사장 취임, ← 전) LG전자(주) 전무이사
- 양승오(29회)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이사 취임
- 허남건(29회) = 대한기계학회 신임 회장 취임, ← 전) 서강대학교 공학부 기계공학과 교수
- 김영훈(30회) = 고려대 안암병원 병원장 취임, ← 전) 고려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장
- 박세우(30회) = (주)LG전자 중남미지역 대표 겸 파나마법인장 취임, ← 전) LG전자(주) 상무
- 안민수(30회) = 삼성 화재 대표이사 취임, ← 전) 삼성생명보험(주) 부사장
- 양석모(30회) = 동성화학대표이사 취임, ← 전) 동성하이켐 대표이사
- 정도현(30회) = (주)LG 사장 취임, ← 전) LG전자(주) CFO부사장
- 박운대(32회) = 부산지방경찰청 2부부장 취임, ← 전) 서울 서부경찰서 경찰서장
- 조선(34회) = 부산일보 상임감사 취임, ← 전) 부산일보 기획실장

〈등록문화재 덕형관에 바란다〉

“덕형관 홍보는 우리가 앞장서겠다”

박극제 서구청장, 예산 지원 약속, 운영 참여 희망



로 참여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겠다.”

박극제(명예회원, 24회)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장은 “문화재는 지역 사회의 공유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모교 덕형관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크게 환영했다. 박 구청장은 덕형관의 보존, 활용 방안 논의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며, 지자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덕형관의 역사적 가치 고양에 서구청이 앞장설 것으로써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지위를 구축하고, 나아가 이를 지역 경제와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문화재로 자리매김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화재의 가치는 홍보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덕형관 홍보는 서구청이 솔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덕형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평생 학습 도시인 서구의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덕형관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송도해수욕장 거북섬 등 관내 관광 자원의 스토리텔링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덕형관의 문화재 지정과 병행하여 모교 상징물인 용마와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함으로써 누구든지 “경고를 찾아가면 반드시 용마의 기상과 기운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 이태석 동문의 기념사업인 <울지마 톤즈 기념사업>은 생가 복원 사업에 이어, 올해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울지마 톤즈 벽화 조성, 울지마 톤즈 거리 조성, 이태석 기념 동상 설치, 그리고 야외공연장 및 쉼터로 활용할 ‘피아노와 놀이터’ 조성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추진에서 등록까지 불과 5개월

덕형관 문화재 지정은 용마 전문집단의 속도전 결실

“지속적 관심, 지원 없이는 진가 발휘할지 미지수다”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568호로 지정된 모교 덕형관의 진가와 명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덕형관은 2013년 정월 말에 원형 교사 문화재 등록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26일에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기까지 불과 5개월 만에 국가문화재로 화려하게 다시 태어났다. 이처럼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을 가능케 한 배경에는 특출한 추진력과 빌군의 실력을 갖춘 ‘자랑스런 용마들’이 있었다.

추진위원장 이용흠 동문을 위시하여 추진위원 류종우(18회), 김차웅(19회), 김정신(24회), 이영학(26회) 동문이 바로 그들이다.

지난해 정월,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 분과 위원인 김정신(단국대 교수) 동문은 이용흠 전 본부회장에게 자신의 건축 저서 2권과 함께 편지 한 통을 동봉했다. 그 편지에서 김 동문은 자신의 문화재 위원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이미 세 차례나 연임했으므로 다시 재임을 낙관할 수 없으므로, “선배님께서 덕형관의 실측 조사 도면만이라도 마련해 주신다면 등록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고 지정 가능성성이 높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김 동문의 뜻을 간파한 이용흠 전 회장은 그 편지를 류종우(건축가, 부경대 명예 교수) 동문에게 보여 주며 등록 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고, 류 동문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곧이어 원형 교사 문화재 등록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했던가. 그로부터



류 종 우 (18회)

분은 “역설적이지만 덕형관 도면은 그렇게 방치된 탓에 손상되지 않고 말짱하게 발견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팀의 환호도 잠시뿐이었다. 설계도가 발견되면서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던 추진 작업이 순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행정 지원 과정에서 번번이 맴주곤 했다. 부산시교육청 재산인 덕형관을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다음,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을 경유해 부산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시가 이를 문화재청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모교 당국이 신청 주체로서 행정 실무 작업 전반에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원활하게 추

〈등록문화재 덕형관에 바란다〉

“미래 내다본 선인들의 혜안 존경스러워”

노상만 백양역사관장, 학교, 동창회, 지역사회 협력 강조



부산 지역에서는 개성고(옛 부산상고) 동창회가 1991년에 설립한 백양역사관이 고교 역사관의 효시이다. 백양역사관은 국내 굴지의

교육 역사 전시 공간으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너나없이 암담하고 곤궁했던 그 시절에, 저렇듯 멋진 원형교사를 세워 오늘날 모교에 크나큰 영광을 안겨준 선인들의, 미래를 내다본, 혜안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그저, 한없이 부럽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노상만 관장이 덕형관의 문화재 지정 소식을 용마동문들 못지 않게 반가워하면서도 ‘부럽다’며 짚은 아쉬움을 토로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당감동으로 이전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노 관장의 ‘한탄’이다.

“서면 교사에는 백양가족 모두가 추앙하는 후쿠시 도쿠헤이 교장을 추모하여 선배들이 건립한 기념도서관이 있었다. 요지 중의 요지인 서면

진할 수 있는 일이었다.

진행 속도가 빠른 이유는 위원장이 뛰었다. 등록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김정신 동문의 임기가 임박한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교육감을 만나 모교 교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직접 끌어냈다. 추동력이 다시 살아났다. 추진 위원이 영학(이상향건축사무소 대표) 동문도 본업을 접어 두고 모교와 부산시청, 서구청을 드나들며 활동을 아끼지 않았다.

실무를 주도한 류종우 동문은 “모교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더 힘들었다”며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가로막고 있는 듯했고, 마치 부비트랩이 깔린 숲을 지나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모교 관계자들이 혹시라도 문화재 지정 이후에 파생될지 모르는 재학생들의 학습 피해 등에 지나치게 얹매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야속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정신 동문은 “최근 들어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건축물 소유주들이 문화재 당국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행동한 모교 당국의 태도가 아쉬웠다”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류종우 동문도 지역민방인 KNN(대표이사 이만수, 28회)이 문화재 등록 예고 사실과 함께 배경과 의미를 대대적으로 내보내자 그제서야 동문들의 전화가 빗발쳤다면서 “그때는 정말 송신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모교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개가로 기록될 덕형관 문화재 등록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용마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동창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만이 덕형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소설가 허택 동문의 <용마 탐구>- 철인3종 경기 선수 박치호 동문

고독한 싸움, 황홀한 작업... 슈퍼맨대회 2위에 올라

박치호 동문(27회)은 부산 사하구 하단에서 23년째 병원을 운영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다. 하지만 박 동문은 2000년 KBS 방송에 철인3종 경기 아마선수로 방송됐으며, 그 후 종종 매스컴에 의사이면서 철인3종 경기선수로 보도되곤 했다. 그는 199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매년 2~3개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철인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여기에는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완주시간이 3시간 반인 올림픽 표준 코스와 완주시간이 17시간인 아이언 맨 코스로 나뉜다고 한다. 그는 특히 철인3종 경기 중 후자인 아이언 맨 코스가 전문이다.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철인3종 경기 아마 강자

인터뷰를 위해 동문을 만났을 때, 뜻밖에도 가늘고 흐리흐리한 그의 체형에 깜짝 놀랐다. 필자의 놀라는 표정에 박 동문이 먼저 질문을 던진다. “보디빌더처럼 우람한 체구로 생각한건 아니냐”고 말이다. 철인3종 경기를 하기 위해 오히려 그와 같은 체형이 매우 적합하단다. 170cm, 67kg이란다. 아울러 흐리흐리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치호 동문은 2013년 모교발전 기금 일천만원을 선친의 존함으로 기부해 동문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바로 선친이 모교에서 16회부터 28회까지 교편을 잡으셨던 박태현 스승님이시다. 동문들에게는 ‘괴뢰군’이라는 추억의 별명으로 뇌리에 깊이 남아 있는 바로 그 스승님이시다.

- 우선 동문의 이력을 알고 싶은데.

“1954년 부산 서구 동대신동 출생이며 1980년 부산 의대를 졸업, 1987년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1987년부터 1990년 대구 가톨릭병원 비뇨기과 과장을 역임한 후 1990년부터 현재까지 비뇨기과 개원 중이다.”

- 의사로서 여러 취미가 있는데 왜 철인3종 경기를 택했는지?

“그간 매스컴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가장 먼저 궁금해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다. 특히 스피드 등산을 즐기다 보니까 1997년 국제신문사에서 주최한 산악 마라톤대회에 출전했고, 그해 다큐 프로로 제주도 성산에서 철인3종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방영했는데, 그것을 본 후 웬지 가슴이 뛰면서 무작정 하고 싶어져서 시작했다. 별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박치호 동문은 ‘철인’의 통념을 보기좋게 깨트리는 인상과 풍모의 소유자이다. 피부비뇨기과 전문의답게 매우 차분하고 섬세한 인상을 풍긴다. 특히 그는 선친의 명의로 모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쾌척해 화제가 되었는데, 박 동문의 선친은 이른바 ‘괴뢰군’이라는 절대적 별명의 주인공이신 박태현 은사님이다. 그를 보노라면 흡사 짙은 시절의 박태현 선생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만큼 선친을 빼닮았다.

- 철인3종 경기 중 아이언 맨 코스를 전문으로 하는데?

“199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2~3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아이언 맨 코스는 주로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는, 완주시간이 17시간 정도 된다. 그런 관계로 주로 봄에서 가을 거치면 시행하게 된다. 물론 3개월 정도 혹독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인3종 경기 아이언 맨 코스는 등수보다 코스를 완주해서 완주자격을 획득하는데,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철인3종 경기 보급 상황은 어찌한가?

“처음 1999년에 철인3종 경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국에 동호인이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는 2000여 명이 넘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처음 출전했다. 또한 초기에는 제주도 성산에서 시행하는 아이언 맨 코스경기가 유일했는데, 현재 전국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철인3종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 철인3종 경기 중 동문의 좋은 기록은?

“2005년 6월 제주 슈퍼맨 대회 50대 전반 2위, 2006년 6월 제주 슈퍼맨 대회 50대 전반 3위, 2012년 6월 제주 슈퍼맨 대회 50대 후반 2위, 2013년 5월 신안 1M대회 50대 후반 3위 등이 있다.”

- 철인3종 경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나 조언은?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등산까지 결들여서 수영, 마라톤, 사이클 세 운동종목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황홀한 일이다. 마음이 내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 보시길 권한다. 훗날 후회가 남지 않게 말이다. 나는 체력이 혀락하는 날까지 매년 즐길 것이다.”

술, 담배 멀리하고 규칙적 생활해서 좋다

- 철인3종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좋은 점은?

“매년 2~3번 경기에 출전하려면 사전 훈련기간이 3~4개월 필요하므로, 일년에 7~8개월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사회적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울 때가 있다. 아내는 오히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 선친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는지?

“선친께서 오랜 기간 모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간혹 만나는 동문들에게서 선친께 심한 꾸중이나 기합을 받았다는 추억을 들게 된다. 나에겐 그저 다른 아버지처럼 다정한 아버지일 뿐이다.”

인터뷰하는 동안 웃는 모습이나 표정에서 스승님의 모습이 서려 있어, 옛 추억에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듯했다. 긴 세월 동안 다져진 스포츠맨으로서의 굳건함이 전혀 의사 같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그래서 환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박 동문의 마지막 말이 따뜻하게 들린다.

용마 횟집

전망이 좋은 횟집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예약문의 051)759-7337, 010-3574-5030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 용 환 (31회)

남기고 싶은 이야기 / 평생 바다에 산 사나이 ④

영광, 그리고 굴욕



천금성(14회·소설가)

그래서 한 가지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일보 장기영 빌행인(후일 국무총리 역임)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게 그것. 거두절미하고 “도대체 신춘문예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작가로 대우한다는 신분사 약속은 뭐냐”는 항의와 함께, 그 증거로 현대문학에 보낸 작품이 계재 거절을 당하였으니 이게 무슨 변괴냐는 식의 지극히도 불충스러운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반향 역시 들을 수 없었다.

이후 나는 작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채 오로지 참치잡이에만 골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당초 두 가지 꿈 가운데 하나는 거덜이 난 만큼 나머지 하나라도 건져내자는 생각에서였다.

드디어 <현대문학>에 작품 실리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다음해(1970년) 연말경 친구로부터 “현대문학 12월호에 작품이 실렸다”는 전보가 온 것이다. 그 사연도 나중에 들었는데, 어느 날 조연현 현대문학 주간이 캐비닛 속에서 꺼낸 원고를 편집장에게 건네는 것으로 하마터면 수장(冰葬)될 뻔했던 작품이 활생하는 대역전극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추측컨대, 편지를 받은 장기영 씨가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넣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작품만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정말이지, 작품에 대한 반응도 뜨거워서, 특히 평론가 김영기 선생은 「심청전에서 적도제까지」라는 제목으로 극찬한 것 말고도, 당시 중앙 일간지의 모든 문학평판에 도배질이 되는 일대 센세이션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걸 요약하자면, 이로써 한국문단이 세계 해양문학을 선도(先導)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문학의 지평도 확 넓어졌다는 찬사와 흥분인 것이었다. 이후 나는 만선하기까지 네댓 달씩 소요되는 매 항차마다 반드시 한 편씩의 단편을 탈고하여 여러 문학지에 무작위로 송고함으로써 서서히 신인의 탈을 벗어난 작가 반열에 끼어들게 된 것이었다.

계다가 인도양에서 귀국하자마자 2항 사이던 나는 수산대학 출신 1항사를 젖히고 먼저 선장으로 임명되는 파격적 대우까지 받으면서, 항해학과(航海學科)를 개설하지 않은, 서울대 출신으로는 사상 최초로 선장이 되는 ‘월계관’까지 들려쓰기에 이르렀다.

1970년 7월 초순, 부산항을 뒤로하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선장으로서의 나의

항해는 시작되었다. 지난 항해 사 시절과 달리 이번에는 카나리아 군도의 테네리페 항을 기지로 한 대서양을 주무대로 삼으면서, 훈련생 시절의 남태평양을 포함하면, 나는 지구상 3대양을 모두 주유(周遊)하는 행운의 배사람이 되어 있었다.

태평양 횡단 항해에는 25일이 소요되었다. 7월 말 파나마운하를 통과하였고, 카리브 해를 일주일 가량 가로지른 다음 또 다른 망망대해인 대서양으로 진입한 것은 그 해 8월 10일의 일이었다.

낯선 바다인 만큼, 나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어장 탐색에 나섰다. 물속 1백 길 깊이를 해어다니는 고기 뼈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먼저 주낚을 깔아 보고 이를 시험투승이라 한다—그 결과에 따라 어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대서양이라고 인도양과 다를 건 하나도 없었다. 대략 1,500마일 폭의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2,000마일에 걸친 중부 해역이 그 무대였는데,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두 어종에, 새치류가 포함되곤 하였다.

고기 잡이는 전적으로 인내심에 시간과의 싸움이다. 하루 2~3톤씩의 어획으로 서너 달씩 황파와 싸우고 보면 이윽고 세 개 어창은 카랑카랑 첫소리는 내는 잘 냉동된 어획물로 채워진다. 그렇게 2년간의 어기를 마쳤을 때, 우리 배는 모두 1,200톤을 잡아 60만 달러 가까운 어획고를 달성하면서 비교적 잘 잡은 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항해 사 시절과 달리, 선장으로 대서양을 항해할 동안에는 시간적으로 훨씬 여유가 많았고 따라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상 생활을 운용할 수 있었으나 우선은 좋은 어획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활발한 창작 결과는 나오지 않은 점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선장이라는 데 없는 여건을 활용하여 어획 면에서만 아니라 작가로 창작물 생산에도 실로 황금기를 구가한 것은 대서양 어기를 끝내고 독항선(獨航船) 선장으로 재차 인도양으로 출어하면서부터였다.

조업 팽개친 작가 선장의 항해일지

그 무렵 나는 아무 거칠 게 없었다. 선장 초임 시절인 대서양 항해에서는 어획고를 계약금의 두 배나 달성한 데다가 자잘한 안전사고 하나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모범적인 항해 가라는 평을 듣고 있었으니 말이었다.

거기에 자신을 얻은 나는 일체의 조업 요령을 항해 사들에게 하달하는 것으로 그치고, 나머지는 오로지 흔들거리는 살롱 집필실에서 항해일지를 대신한 해양소설 쓰기에만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마흔하늘에 날벼락이라면 가. 지난 2년 동안의 대서양 항해를 정산(精算)한 결과 적자(赤字)가 났다며 분배금이 한 푼도 없다는 전문이 온 것이었다. 아니 이건 무슨 날벼락인가! 당초 회사와 약정한 어획고는 2년의 출어 동안 35만 달러였다. 나는 물론 그 목표치의 두 배 가까이를 달성했다. 그런데 적자라니! 하지만 잡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실어주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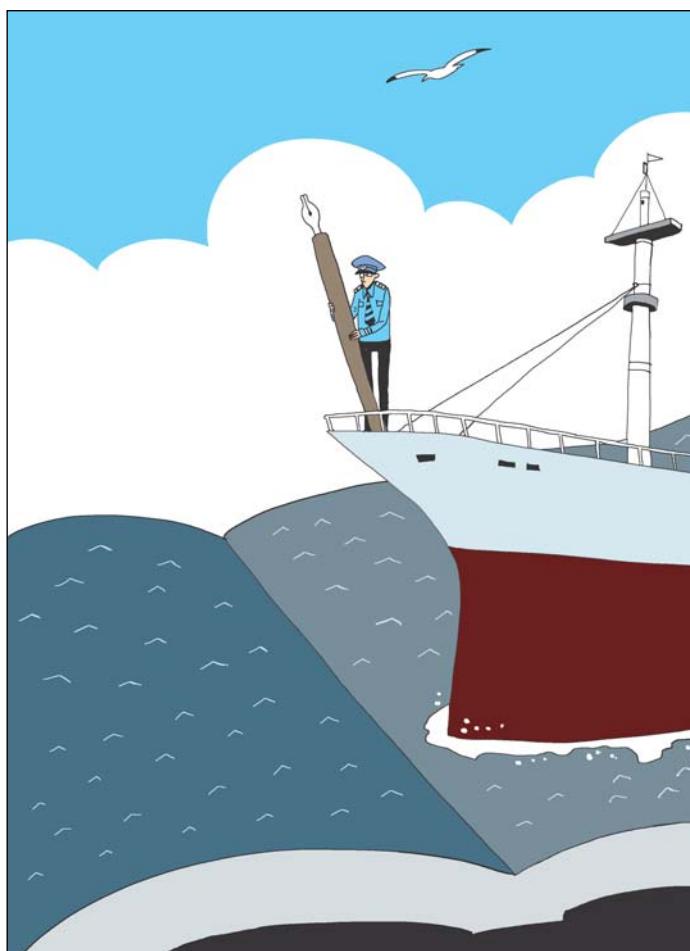
양작가로서만이 아니라 당대를 대표하는 중견 문학가로 평가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 바다에는 항행선을 위협하는 암초(暗礁)가 즐비하다. 승선 10년 차이던 1978년, 당시 베스트셀러 출판 사로 이름을 떨치던 <문학예술사>가 그간 발표한 작품들을 둑어 창작집을 내준다고 하여 일시 상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게 되돌릴 수 없는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창작집 <허무의 바다>가 출간되기는 문단 데뷔 꼭 10년째인 1978년 5월의 일이었다. 작품에 대한 반향은 무척 뜨거웠다. 이른바 한국 문단에서 난생처

을 구경하는 본격 해양문학이어서였을 것이다. 특히 고교 3학년 때 작가시자 은사이신 손동인 선생님은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으로 청출어람(青出於藍)이라 칭찬하시기까지 하였으니 말이었다.

방송과 신문 등 각 언론 매체의 관심도 커졌다. 그 중에서도 경향신문은 한 지면을 봉땅 도배 질한 인터뷰를 실으면서 자기 신문에다 당장 해양소설을 연재하자는 제의까지 해왔다. 왜 마다하겠는가. 작가가 되면 이처럼 하루 아침에 유명인사가 되는가도 싶



서상균 화백의 그림

원의 처지에서 도대체 그 고기가 얼마나 팔렸으며, 이익금은 얼마인가를 알아낼 재주도 없고, 방법도 없다. 이 판매 시스템이 원양어선에서의 아킬레스건이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당장 뱃머리를 돌리자는 막가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일. 그리하여 당시의 유통과 하소연은 나의 신작 중편소설 <허무의 바다>에 고스란히 담겼다. 가령 작업을 하다보면 날렵한 해적돌고래(일본어로 샤치)에 다 뜯어 먹히고 고기라는 것은 빈 대갈통만 뱵글뱅글 돌며 올라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나는 원양회사 선주들을 가로채기 명수인 샤치에 빗댈 만큼 올분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다.

온사 손동인 선생님도 ‘청출어람’ 칭찬

중편소설 <허무의 바다>로 작가로서의 나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다. 특히 정통 서구문학을 전공한 문학평론가 송재영 선생은 <문학과 지성> 지면에 ‘체험과 문학—천금성의 해양문학’이라는 장문의 글로 나의 문학을 옹호하였는데, 그것으로 나는 해

었다. 그렇게 하여 나로서는 운명의 해가 되는 1979년 1월 1일자부터 <본격 해양소설 표류도(漂流島)>를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요즘의 비디오 시대와는 달리, 구로공단 아가씨들 가슴팍에는 반드시 한 권의 책이 안겨져 있을 만큼 독서열이 대단할 때였는데, 덕분에 이를난 출판사들이 아직 연재 중인 글을 서로 출판하겠다며 계약금을 쌌고 오는 진풍경도 있었고, 각급 문예지에서도 나의 원고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바람에 한 해 동안 무려 열편도 넘는 중단편을 발표하면서 인기작가의 대열에 끼는 영광도 누렸다. 그렇게 하여 다음해에는 앞서의 <표류도>와 창작집 <은빛 갈매기>를 잇달아 출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그 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弑害) 당하는 국란(國亂)이 불거지면서 앞서 밀한 대로 나로서는 악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비운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니 그 일을 어찌 할꼬.

(다음 호 계속)

그때 그 시절 이야기

경고 역사상 최초의 육상 금메달



문 관 진 (19회)

세상 사람들은 ‘경고’라고 하면 대통령에서부터 삼부요인과 기라성 같은 수재 졸업생을 배출한 일류 학교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는 야구를 꼽는다. 청룡기 대회 1, 2, 3회를 연패하면서 시작된 야구 명문 경남고의 전통과 기록은 가히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영광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야구 선수 이외에 운동선수를 이야기할라치면, 마치 정통 범주에서 한참 벗어난 ‘별종 경고’쯤으로 여기며 머리를 간우뚱거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내부로 보더라도 그렇다. 예컨대, 1회 선배들이 동래고 축구부를 격파했다거나, 11회, 12회 선배들이 경남상고 축구부를 꺾었다는 이야기는 야구부가 전국 우승을 했다는 것보다 더 신기해하거나 “정말일까?”라며 미덥지 못해 하는 일이 다반사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경고에는 야구부만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 19회 동기들만 해도 야구 스타에 끌리지 않는 운동 선수가 많았다. 당시 별명이 ‘한판승의 사나이’였던 유도 스타 이용희(전 본부동창회장)도 있고, 복싱 챔피언 권철현(전 주일 대사)도 있다. 필자 또한 육상 투포환의 선수권자였고 부산 학생기록 보유자였다. 투해자는 2등, 투원반은 3등까지 올랐다.

야구 선수 못지 않았던 스타들도 많았다

나는 1학년 때, 축구부와 유도부에서 활동했다. 축구부는 특기생으로 포진한 부산의 축구 명문들과 격돌해 3등을 차지한 적도 있었다. 우승보다 더 통쾌한 일이었다. 우리에게 패퇴당한 그 ‘특기생’들이 밤늦게까지 감독한테 까무려칠 만큼 늘씬하게 얹어터졌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필자가 재학했던 시절에도 야구부 이외의 다른 체육부는 선생님들의 관심 밖이었다. 학교의 지원 같은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더욱이 부모님들은 “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그 짓을 하느냐”며 숫제 운동하지 못하도록 다그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방과 후면 강당으로, 운동장으로 모여 신나게 운동을 했다. 우리 동기만 해도 축구부에 5명, 농구부에 10명, 핸드볼부 8명, 유도부 20명, 검도부 10명, 태권도부 10명, 복싱부 6명, 체조부 5명, 펜싱부 4명, 연식정구부 5명, 탁구부 10명 그리고 육상부에 10명 정도가,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땀을 흘낏 흘리며 좋아라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시 생각해도 그때가 정말 좋았다 싶다.

1963년, 2학년 가을 어느 체육 시간. 8파운드짜리 포환던지기가 그날 수업의 중심이었다. 선생님이 일러 주신 대로 다들 열심히 던졌다. 그런데 내가 던진 포환은 급우들이 던진 것보다 1.5배는 좋이 넘게 날아갔다. 지켜보고 계셨던 한보연 선생님이 아주 신기해 하셨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라고 하셨고, 포환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멀리 날아갔다. 깜짝 놀란 선생님은 대단한 비거리라며 칭찬하시며 내일부터라도 당장 열심히 연습해 보라고 하셨다. 1, 2, 3학년 대표들을 뽑아서 운동장에서 시합을 벌였을 때도 나는 월등한 기량 차이로 1등을 차지했다.

그리하여 나는 육상에도 빨을 내딛게 되었다. 유도부 주장이었던 나는 유도 연습을 마치는 대로 운동장에 나와 투포환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습을 한답시고 하지만, 투포환 종목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종목 이름이 거의 전부이다시피 할 만큼, 어떻게 하는 게 바

른 훈련법인지 당최 알 길이 없었다. 혼자의 깜냥으로 머리를 굴리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물망 자루에 포환을 넣어 가지고 다니며 집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했다.

첫 출전 대회에서 학생신기록 세우고 금메달

이듬해 3학년에 진급하면서 육상부 선수들과 구덕운동장에서 연습을 함께 하게 되었다. 나를 제외하고 모두 트랙 경기 선수들이어서 그들한테서도 배울 것은 별반 없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다른 학교 ‘특기생’들한테 훈련 지도를 받게 되었으니 참 묘한 일이었다.



문관진 동문은 건장한 체구에 호방한 성품의 장부이다. 유도부 주장을 지냈고 축구부에서 뛰기도 했다. 사진은 19회 졸업앨범에서 옮긴 것이다

구덕운동장에는 덕원공고와 항도고 등 당시 쟁쟁한 육상의 강자들도 같이 연습을 했는데, 들통보도 못한 경고생이 나타나서 포환을 목덜미에 대고 해대는 짓이 그들 눈에는 가소롭게 비쳤던 모양이었다. 눈꼴사납게 여겼던 그들은, 짐짓 연습장에 어슬렁거리지도 못하게 할 요량이었던지, 나에게 다가와 팔찌를 한 번 해 보잔다. 그들은 월드 종목 선수답게 근육질이 잘 발달된 몸짱들이었다. 그러나 팔찌를이라고 하면 나도 꽤 센 편이라 여겨졌으므로 두말 하지 않고 불렀다.

결과는 모조리 ‘3초 게임’으로 끝냈다. 그제서야 그들은 훌연히 등장한 책상불립 경고생을 다시 보게 되었고 친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 종목 코치였다. 그들의 지도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기록 향상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1964년 7월 18일, 드디어 제45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시예선대회가 구덕운동장에서 개막되었다. 난생 처음 나서 보는 육상대회였다. 나의 코치님들도 출전했음을 물론이다. 나는 연습한 대로 던졌다. 포환은 12m 75cm를 날았다. 부산학생신기록이었다. 전국기록으로는 2위였다. 당시 전국학생기록은 전북 어느 학교 선수가 가지고 있던 13m 5cm였다. 나보다 30cm 앞선 기록이었다. 경고 대표로 처음 출전해 부산 학생신기록을 세우고 경고 육상부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따낸 것이었다.

나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사진기자들의 요청으로 경기장에서 다시 포환을 던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껏 챔피언다운 포즈를 뽐내면서 말이다. 국제신문은 ‘힙의 경고를 과시한 문관진 선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나의 멋진 포즈를 실었다. 부산일보도 ‘육상 남고부 투포환에서 부산학생신기록을 세우는 경남고교 문관진 선수’라는 사진 설명을 붙여 크게 보도했다. 내 모습이 실린 그때 스포츠면 사진은 내가 좋아했던 남성여고 여학생이 <수학 1의 정석>이라는 참고서 내지 맨 앞에 예쁘게 붙여 선물해 주었다. 만복당에서 찐빵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우승기념 파티를 그녀가 열어 주었음을 이제야

고백한다. 그런데 어찌되었는지, 그 뒤 아무리 뒤져도 그 신문사진은 찾을 길이 없었다. 메달도 행방불명이다. 상장과 메달은 대회가 끝난 뒤, 전교 조례시간에 박경원 교장 선생님이 수여했다.

통한의 체전 예선 탈락, 그래도 ‘평양기생’이 있었다

이윽고 10월이 되어 나는 인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체육대회 부산학생대 표로 출전한다. 그런데 그 대회가 내 평생 지울 수 없는 회한을 안겨줄지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전국학생기록 2위 보유자인 나는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었다.

경기가 열린 인천경기장에는 그날따라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 비 때문에 포환을 던지는 서클은 매우 미끄러웠다. 세 차례 던지는 족족 마지막 동작 ‘던’에서 정지가 되지 않아 내 발은 모래에 밀려 서를 바깥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다. 상상도 못한 예선 탈락이었고, 그것도 기록에 의한 탈락이 아니라 실격에 의한 탈락이었다.

문제는 운동화 때문이었다. 나는 경기 선수용 전용화가 있는 줄도 몰랐거니와, 그냥 보통 학생들이 평소에 신고 다니는 일반 운동화를 신고 출전한 것이 화근이었다.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해도, 어디 시골산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아닐진대, 신발이 미끄러져 실격을 당했으니까 신문에 날 일이었다. 차라리 맨발로 던질 걸 그랬다고 후회해 보았지만, 빗물과 엉켜 흘러내리는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억울했고 야속했다. 내가 경기하는 동안 부산의 육상 입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한 분이라도 있었더라면 미끄러운 서클 바닥과 운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최소한 은메달이 보이는 선수를 출전시키고도 내몰라라했던 그들이 야속했다.

그런 조짐은 부산학생신기록을 세우면서부터 있어왔다. 나에게 접근해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받아보라고 부추긴 이들이 없지 않았다. 그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아버지께 “신기록까지 세웠으니 운동화 한 켤레 사주시구려”라고 말씀하셨다가 “공부해 좋은 대학 가서 장차 판검사가 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맨날 운동에 정신이 팔려...”라고 호된 꾸지람만 들었던 내가 돈을 들여 개인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예선 탈락이라는 치욕에 봄서리치는 나를 위로하고 달래 준 이는 역시 남성여고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또 나를 만복당으로 불러 찐빵과 단팥죽으로 차린 위로 파티를 베풀어 주었다. 창피하고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고마움은 잊을 수 없다.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는 ‘평양 기생’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던 그녀는 문장력도 뛰어난 재원이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대학진학이 좌절된 뒤로 나와 연락을 끊었다. 대입 재수생으로 내가 서울에 머물렀던 것도 이별 사연으로 작용되었는지 모르겠다. 뒷날 그녀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2012년 겨울 어느 날 그녀를 만났다. 50년 가까운 세월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에 싸여 말없이 웃고만 있었다. 그녀를 영영 보내고 돌아서면 밤길에는 겨울비가 내렸다. 그날따라 길바닥이 미끄럽게 느껴졌다. 인생에도 실격이 있을까. 내가 던진 포환의 무게는 12파운드. 그녀가 던지고 간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

본부동창회는

재경지역을 포함, 전국의 모든 동문들에게 동창회 보를 직접 우편으로 개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소 바뀌었거나 누락된 동문께서는 구독신청을 해주시면 접수 되는대로 바로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주소 변경신고 = 본부동창회 사무국
Tel. 051)245-7551~3/Fax 051)245-7550

한형조 동문의 고전한담⑪



한형조

(3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분노는 사회적 문제이다. 인간사 크고 작은 문제의 바탕에 무의식적이고 불합리한 정동의 역학이 깔려 있다. 삶의 모든 형태의 전쟁은 우리의 공격성, 그리고 편견과 관념으로부터 생겨난다. 우리 모두 분열되고 추악해진 이 사회의 일부이다”

1.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의 서두에서 말한다. “노비투스여, 너는 나에게 묻는다. 공격적 격정, 자신의 파멸도 불사하는 이 분노에 대하여... 치명적인 학살과 독설, 고소와 맞고소, 도시를 파괴하고, 부족의 멸망을 불러온 이 치명적인 열정에 대하여...”

분노는 사적이고, 전염된다. 그것은 나의 마음 어디선가 촉발되어, 그리고 주변, 회사, 이웃으로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 그 속도는 빛보다 빠르고, 코브라의 이빨보다 치명적이다. 오죽하면 공자가 그의 수제자인 안연을 치켜세우며, ‘불천노(不遷怒),’ 즉 화를 옮기지 않는 마인드 훈련에 탁월하다고 했겠는가.

그런 점에서 분노는 사회적 문제이다. 인간사 크고 작은 문제의 바탕에, 무의식적이고 불합리한 정동의 다이나믹스가 깔려 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한다. “삶의 모든 형태의 전쟁은 우리의 공격성, 그리고 편견과 관념으로부터 생겨난다. 우리 모두 분열되고 추악해진 이 사회의 일부이다.”

2. 다산 정약용은 1799년, 형조참의를 맡았다. 호기심 많은 관료답게 수십년간의 살인사건 공초를 두루 훑어보았다. 그가 정리한 살인사건의 동기는 네 가지였

다.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금전(財)과 치정(色)이 중심이고, 말썽꾼 술(酒)이 빼질 수 없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의아하다. 기(氣)! 반말지끼리를 하는 바람에 횃김에 울컥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 역시 한국인은 격한 감정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가. 고유어 가운데 감각어와 감정어가 발달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 자신이 오줌 뿌려둔 가치(?)의 훈스를 침범할 때, 혹은 그렇다고 ‘생각할 때,’ 이 손님은 찾아온다. 울컥, 허허힝, 날뛰는 야생마의 고삐를 다잡기는 정말 어렵다. 어디 우리 만 그럴까. 얼마 전 방한한 티벳의 비구니 텐진 파모가 웃으면서 술회한 바 있다. “전 세계를 돌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3.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불교는 발상의 허를 찌른다. “누가 네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다고? 감사해라... 삶의 맷집을 키워주는 고마운 스승 아니냐.”

유교의 해법은 좀 다르다. 분노가 치밀 때, 자동반응에 맡기지 말고, 차갑게 그 메카니즘과 프로세스를 읽으라고 권한다. “부당한 것이라면 무시하고, 정당하다면 반성의 계기로 삼으라. 그렇더라도

매사 흄이나 찾고, 작은 일을 과장하는 조장이와는 상종하지 마라.”

그러나 유교가 숨겨 둔 최종적 해법은 따로 있다. “외물(外物), 즉 누구든 무슨 일이든, 너의 내면을 뒤흔들게 허용하지 마라. 그 피난처에서 안전하라.(明道先生 謂張子曰, 人之情易發而難制者, 惟怒爲甚. 第能於怒時, 遽忘其怒而觀理之是非, 亦可見外誘之不足惡, 而於道亦思過半矣.)” 그러면서 속삭인다. “우박이 바다를 하얗게 때려도, 바다 속은 고요하지 않더냐.”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화가 하늘을 찌르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파도가 가라앉으면 “왜 그랬지?” 싶은 생각에 후회 하신 적은 없는가. 그럼 화는 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 것일까?

이 해법이 글쎄 싶다면, 어느 셀러리맨을 따라해 보기를 권한다. 베거운 일에 부딪칠 때마다 그는 주머니 속 스마트 폰을 꺼냈다고 한다. 거기 당근 사랑스런 부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터. 그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린다. “내가 이 마누라랑도 10년을 버티며 살았는데, 이 정도 어려움 쯤이야...”

마하 인욕바라밀, 위대하도다, 인내로 건너는 세상이여!

대구 거목 된 용마, 정순모(4회)



정순모 동문, 학교를 찾아온 동기들과 함께 (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

지난해 10월 11일, 서울과 부산에 떨어져 있던 우리 용마 4회들이 모처럼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경부동기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을 뜻밖에도 대구에서 가지게 된 것은 계명대학교 이사장인 정순모 군의 각별한 배려 덕분이었다. 그날 모임이 아마도 우리 생애의 마지막 경부동기회일지도 모를 일이어서 실제로 감회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정 군은 율사가 될 꿈을 품고 부산대학교 법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다시 신학대학을 거쳐 목회자의 길을 택했다. 그의 선친은 초량교회에서 평생을 밭친 분이다. 그가 목사로서 처음 맡은 교회는 대구의 동문교회였다. 교회 운영의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었고, 뒷날 종로교회를 합병하여 동로교회를 세웠다. 그는 목사로서 철저한 신념과 해박한 설교로써 여러 계층으로 선교 영역을 넓혀 갔고, 특히 청소년 단체들은 동로교회를 선교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다. 1960년 그는 계성학교 교목으로 부임했다. 교목의 재직 기간은 길면 3년이고, 짧으면 1년인데, 그의 인품과 능력을 인정한 사목계와 교육계가 그를 놓지 않았다. 교목으로 교육

계와 인연을 맺은 그는 교권 수호에도 과감했다. 관권과 정치 권력에 맞서 싸운 그의 술한 일화는 지금도 대구 교육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의 진면목은 단연 계명대학의 종합대학교 승격 과정에서 나타난다. 1970년대 중반 무렵, 계명대학 재단에서 승격 문제가 나왔다. 그 당시 종합대학교 인가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기 때문에 재단측에서는 상당한 부담과 노력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있던 동기생 정상천 군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의 결출한 능력이 발휘되면서 승격 노력은 의외로 잘 풀려나 갔다. 계명대학교는 종합대학 승격에 이어서 동산의료원(옛 동산병원)을 합병하면서 의과대학까지 신설하였다. 명실상부한 영남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일로 해서 우리 경남고에 대한 계명대 관계자들의 외경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특히 1980년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민중항쟁이 전국적으로 벤지던 격랑 속에서도 그는 대구 사회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외유내강한 그의 참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용마로서 새 삶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일행은 칙사 대접을 받았다. 계명대학교 신일회 총장이 몸소 우리를 맞이했고 환영 오찬까지 베풀어 주었다. 그런 손님맞이는 우리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

박기홍(4회)

용마에 써이

清想을 바라며

남편의 동기회 모임에서는 통행한 ‘여학생’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백일장을 벌이곤 했습니다. 출제자의 밑상스런 기벽을 익히 아는지라, 여학생들은 저마다 ‘쪽집게’를 꺼내 예상 시제를 찍어 봅니다. 예상 적중!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쾌재를 불렸던 ‘젖은 낙엽’은, 아뿔사, 혓다리만 짚고 말았습니다.

젖동냥 다니던 심청이 아버지
은백발 감추려 모자 쓴 아저씨
낙장불입 외치는 원탁의 왕서방
엽자 한 잔 따뜻이 대접해 올리리다

쪽집계가 잘못 짚어서 그럴까요? 젖은 낙엽을 보면 웬지 족은한 마음이 듭니다. 오뉴월 푸르디푸른 먹을 품고 늄름히 서서 세상을 호령하던 청득이 가을바람에 하나씩 떨어져 겨울비 내리는 날 길바닥에 나뒹굴며 이리저리 치이다가, 겨우 찾은 틈새 자리에 붙어 있는 낙엽을 보면 바로 우리네 남편들 생각이 나는 건 저 혼자만일까요?

요즘 세상이 짚음과 청춘만을 노래하고 즐거워하지만 일부러 숙성시켜 발효한 것을 약으로 삼는 행복함도 있습니다. 비록 오늘 제 모습이 발가벗은 한 그루 오래된 겨울나무 같을지라도 그대로 또한 멋이 있습니다. 옛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세상을 누볐다고 하지만 사랑의 기적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을 하면 늙지 않는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앞에 있는 그이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팔청춘으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오래 함께하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던 일상들이 외면하고 못 본 체 해도 서로 모르게 닮아 있습니다. 짊디짚은 청춘에 만나 백발이 성성한 이순을 넘기고 보니 이제 연리지처럼 하나 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바닷가 소나무 울음소리는 파도소리를 닮는다’고 했습니다. 경남인의 짹으로 살다 보니, 저 또한 동문이 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아들 녀석까지 동문이라 더 그런 생각이 드나릅니다. 해서, 경남인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접하면 내 일처럼 마냥 기쁩니다. 동문 가족으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겠지요.

지난 삼십여 년 뒤돌아보면 좋았던 일도, 재미있었던 일도 많았지만 후회스러운 일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간 아껴가며 남은 이 삼십년, 맑은 생각만 하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깊은 산사 저녁 예불에 울리는 범종의 장엄한 울림이 그윽한 감동을 주지만, 주녀 끝에 매달려 조그맣게 울리는 풍경소리도 데없이 고귀한 아름다움을 줄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느릿한 여유를 가지고 소소한 일상에 즐거워하며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박인숙(24회 황성훈 동문 부인)

2013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총 3,942명 2013. 12. 31기준

*()는 선납부자

1회(2명) 박명현 허종수

2회(1명) 박기화

3회(19명) 김영태 김용해 김희철 류영렬
문병집 박영희 박준양 박영학 손주석 송
두호 신정택 신현의 원호출 윤태윤 이
경 이안규 정규일 하덕모 황성남

4회(29명) 김경식 김기홍 김상희 김옥윤
김용숙 김용해 김종호 김주호 김홍숙 김
희수 문택상 박무열 박석만 박홍기 송호
길 신상대 양종학 윤옥경 이남규 임영수
장수호 장영만 정상천 정순모 정치근 조
성일 조오제 조홍제 황갑생

5회(30명) 김군석 김석호 김은규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김형대 문윤정 박봉식 박
장후 박종구 배종태 상기중 손보의 송두
성 우명수 유병한 이경옥 이문기 임성업
정만오 정인조 정진우 정필조 정희준 주
법국 진도영 최영철 홍관식 황홍성

6회(41명) 곽후섭 김상엽 김윤용 김태곤
김태환 노재형 문교순 문현순 박기복 박
종곤 배문수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협희
성 오영은 유상환 이강윤 이길상 이선환
이현우 이희문 임경택 장재수 정건용 정
경규 정덕환 정봉락 정상철 정승화 조관
승 조윤승 조재형 천산무 최갑영 최병수
최석원 최인갑 최한병 조정규 허 택 (이
길상 2014년)

7회(50명) 강병희 강창구 구택용 김갑성
김광숙 김명관 김명한 김사룡 김삼현 김
영민 김용우 김종순 김중경 김진홍 김태
배 남홍우 류상남 박동순 박세랑 박영섭
박영식 박재봉 박환배 배건식 배병우 배
증현 서우찬 소진은 송외득 양종완 오동
환 오장은 원용부 윤용우 윤진현 이도환
이동우 이민희 이상주 이진호 이창범 임
성극 임의택 정보영 정정보 조덕찬 하근
수 함홍주 허종호 홍성완 김삼현 2014년)

8회(54명) 강성태 구본섭 권순길 김봉길
김상식 김영길 김영환 김재범 김정곤 김
진석 김태규 도은영 문 국 문동현 문창
화 박동열 박우상 박재범 박희옥 배기현
배덕수 배주원 백낙오 서연수 서진근 손
세일 신동춘 안종열 엄덕양 이상복 이양
희 이유환 이윤조 이정윤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준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이
희옥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정진수 조성
래 조윤제 지창수 최경태 최낙병 최윤식
최재혁 홍기성

9회(62명) 강영진 고수홍 김경희 김기학
김동용 김성우 김성탁 김영문 김용환 김
이도 김정구 김종호 김 청 노도현 차상
구 박남수 박당희 박영복 박희철 성백규
신석현 신용의 심재훈 (20만원, 미 플로
리다 거주) 안규현 안병환 원중희 유금열
유병철 윤성태 윤일명 대규 이동현 이
영구 이재현 이주한 이환원 장동근 장병
국 전인규 정 륙 정민주 정해돈 정행권
조규대 조규양 조달문 조성진 조용길 조
이호 지삼봉 차진한 최성숙 최위철 최종
현 최한성 하재환 한동대 한득주 흥기표
홍순대 황영선 황호승 (정록 2014년)

10회(73명) 강희윤 고광수 권용술 김제
순 김기호 김기훈 김동민 김상국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연수 김용규 김
용원 김재곤 김정학 김종술 김창덕 박가
수 박광식 박재경 배길순 배태기 서철하

박원길 박일웅 박정일 박종탁 박주열 박
진태 박홍일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변윤
식 변종길 서시주 서영웅 서재룡 성정호
성태경 송문일 송신의 송창식 숨결새별
신동배 신동조 신 명 신민철 신용태 신
하근 심영수 안가연 안준수 양길승 오상
찬 오원수 오한수 옥종한 윤기갑 윤영우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명진 이
범경 이병한 이상택 이상문 이성빈 이영
복 이용웅 이응재 이정명 이정호 이종달
이종영 이종일 이준범 임진부 이창성 이
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랑 임소철 임영
홍 임홍조 장영길 장용웅 전복룡 전중신
정로상 정연호 정영화 정은설 정종현 제
병민 조달곤 조병성 조성호 조용갑 조준
탁 조철현 차영일 최동한 최번영 최상호
최성숙 최영완 최태환 주지석 한관수 한
병조 한진희 허갑도 황일인 황정대 (이경
재 2019년, 숨결새별 2014년)

11회(119명) 강문상 강병희 강용대 강점
석 고한준 공상기 곽정출 곽태엽 권병용
권 보 김기주 김달경 김무룡 김병기 김
병태 김삼진 김선길 김성규 김수정 김영
식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윤택 김인섭
김재곤 김재덕 김재택 김재환 김정수 김
종수 김중하 김창하 김태호 김학수 김항
곤 김형관 김효민 남호현 문정오 박관호
박봉홍 박성우 박성준 박수경 박승우 박
영복 박영하 박용관 박종환 박창순 박태
오 박희태 배상천 배일규 서영호 서자윤
서진갑 성기득 손봉길 송호근 신유기 신
윤업 신현석 신흥성 심재룡 안강태 안경
문 양호준 염한호 오완수 오정광 유흥종
유흥수 윤재관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
균우 이 명 이병태 이상석 이상철 이상
태 이상학 이상훈 이성길 이성우 이세영
이재진 이정기 이종문 이종백 이종범 이
종주 이태순 임근호 장대철 장세원 장영
권 장영천 정광웅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조동준 조현도 지창호 채기권 천금준 천
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숙 최영태 최태
원 하영득 현정준 홍순문 (박희태 2017
년, 이세영 2014년, 조동준 2016년)

12회(125명) 강본순 강창수 공 문 괴진
영 구봉근 구진웅 구창희 권시길 권언호
권연상 길철종 김광수 김기수 김기인 김
기준 김두수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
렬 김석곤 김선일 김수원 김영보 김영수
김용호 김우성 김원경 김의도 김일준 김
재덕 김정현 김종련 김종성 김종수 김종
일 김지명 김지희 김진갑 김창진 김철기
김현주 김홍래 김훈호 김희련 남기용 류
영철 문재권 문준화 박대성 박문기 박순
국 박영윤 박영환 박용운 박재영 박정윤
박종정 박 창 박호민 배기원 배종섭 백
승균 백승권 변동만 서병기 서상현 서태
상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규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정 옥계한 왕한균 윤
학근 이규만 이병태 이상현 이성대 이수
귀 이수영 이승문 이승태 이영길 이용언
이용희 이원우 이일쇄 이준복 이현달 이
환철 임상원 임우영 임정명 임창완 장동
석 장승재 장지흡 정광삼 정대식 정성수
정성원 정수복 정영철 정외철 정호중 조
한기 조홍래 지수남 차민도 천금태 최수
행 최신일 주영재 하일민 한준배 한령수
허은도 허정숙 흥두표 황태영 (김두수
2014년, 백승균 2015년)

13회(136명) 강귀동 강영삼 강정문 고송
구 고시준 구덕건 구문광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공남 김동호 김무조 김민철 김
부조 김상치 김상한 김성대 김소웅 김승
언 김신부 김영명 김장웅 김정균 김정성
김정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형태 김
홍석 김홍수 김홍철 노경규 노일용 문
창 박건일 박민보 박안남 박양웅 박영주

김찬문 김창희 김철곤 김태일 김형석 김
휘부 노상현 문성환 문형식 박광작 박기
용 박두영 박민소 박수면 박수명 박영기
박용일 박정숙 박종봉 박종영 박준호 박
홍 방수근 배정희 배 청 변일수 서대인
서정호 서태복 서효조 설희순 성기식 손
송방 손용석 손한조 송규정 송자문 신평
양 안국정 양성민 양휘부 여성국 예광해
오광치 오형칠 옥무용 옥시영 옥윤석 유
정호 윤세진 윤효주 이경일 이경재 이경
환 이계술 이계웅 이규방 이길홍 이동백
이맹립 이무근 이무영 이성남 이성인 이
양근 이영재 이종승 이종철 이채언 이철
수 이청원 이현규 이효일 임승언 임 실
장사충 전무갑 정영일 정우광 정원철 정
일성 조운일 조원제 조홍제 차상영 채경
일 천 경 최윤철 최정일 추성곤 하주열
하청연 하홍근 하희진 한일랑 허 곤 흥
정길 황규호 (박수명 2014년)

14회(113명) 강주신 강통삼 강휘주 김건
호 김경수 김 공 김덕행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명정 김무남 김성부 김영대 김
영식 김영우 김용후 김원곤 김의웅 김재
도 김종석 김준우 김창기 김 충 김태희
김형수 김홍준 김화옥 남기우 노병현 노
수덕 류총일 문성필 문운용 박건길 박남
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진재
박청길 박청홍 박해동 박효건 백태우 변
희경 서명성 성이경 손광웅 손영목 송석
출 송재현 신기석 신용진 신정봉 신준호
신현호 안명수 양정우 오종철 오태홍 유
정호 윤영현 윤정남 윤태규 이경우 이광
언 이광우 이길미 이동식 이명재 이수남
이재돈 이재인 이진우 이창언 이창화 이
환균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장우일 전병
순 전수신 정선언 정용마 정현구 조기정
조보근 조영봉 조정현 진성태 천금성 조
규향 최건자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
웅 최종락 하광진 하문수 하찬봉 한규환
한문식 한수길 함영철 허민영 허 증 황
수길 황원재 황홍석

15회(112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
남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고태언 구명준
권대식 권승부 김경일 김길영 김뇌명 김
명배 김삼곤 김상차 김성명 김소현 김송
평 김쌍열 김양일 김양정 김염훈 김옥규
김완식 김윤배 김정환 김종태 김종한 김
준군 김충식 김판열 김학현 김황영 남암
순 박국웅 박복만 박영길 박종복 박종석
박찬호 박철양 박호문 박효가 배 박 배
성훈 백승진 서영진 서정숙 손부홍 송길
웅 신용기 신현영 신흥규 오봉석 우효기
원성용 윤우경 윤휴정 이 건 이동근 이
상호 이선공 이순구 이승남 이승우 이은
수 이재원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일
이 준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영일 장
종호 장청길 전동석 전영삼 정강홍 정길
수 정동포 정옥종 정준수 정형남 조규증
조영일 조일랑 주정중 천신일 최광웅 최
병우 최원수 최은호 최의수 최진모 최창
석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종덕 허의찬 황건세 황
중부 황춘식 (천신일 100만원, 임영길
2022년)

16회(128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
원경 강인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
석 권복술 권의강 김광수 김광용 김길정
김덕찬 김두웅 김명식 김박일 김봉구 김
상웅 김승호 김양원 김연호 김영우 김용
진 김인국 김정우 김 조 김종덕 김종석

성 2014년)

19회(153명) 강영범 강재욱 강환섭 고광호 고문찬 공기주 공영섭 권정덕 권철현 김경재 김국남 김규하 김근수 김대인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문기 김배호 김봉호 김부환 김석구 김석윤 김성봉 김성욱 김성진 김성희 김순호 김양규 김영복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익건 김일천 김정우 김증기 김증우 김진국 김진호 김철호 김충래 김형락 남기진 남진현 남대현 노은영 정규영 문관진 박갑진 박동화 박상식 박성근 박성주 박성철 박원재 박종화 박준우 박차천 배무삼 백용환 신필열 서세복 선우일남 성기혁 성낙출 성환진 손말현 손철수 신풍수 신봉문 신윤철 심영섭 심재구 안정모 양승수 양학기 오태수 육인영 우정복 유문화 윤수상 윤영규 이강용 이경우 이근식 이기주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수천 이양환 이용만 이용수 이용우 이용조 이용홍 이윤홍 이인철 이장희 이종명 이종선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현 이창홍 이준만 임영수 임우근 임재원 임춘섭 임태석 장성규 장조훈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극수 정기영 정수남 정승수 정용식 정원찬 정운영 정태규 정태을 조성환 조세현 조순제 조재윤 진수상 진홍재 최경석 최광우 최병수 최영식 최정학 최철희 최화의 한명섭 한종환 허남길 허홍숙 홍성봉 홍승표 황성진 황태경 황태원 황호균 (원철현, 이상우, 황성진 2014년)

20회(111명) 강경수 강기철 강병천 강부덕 강석근 강현진 고세훈 구본홍 구영남 금석주 김대업 김두영 김병문 김성룡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홍 김원갑 김원율 김일석 김재민 김정환 김조동 김종민 김진환 김찬만 김철영 김태영 김한성 김한원 김향곤 김형기 김형오 김홍직 김화식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민영기 민령기 박옥양 박용덕 박준 박현수 배서호 배정호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서상희 서재홍 설창환 손영철 손춘수 신기한 신용완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승태 양태윤 여정호 오경석 오기현 유장렬 윤봉태 이갑현 이맹기 이명환 이범주 이봉구 이상의 이상진 이석창 이실근 이영오 이우종 이웅천 이종열 이종찬 이천규 이화준 임성준 장상배 장재성 전일준 정국록 정규식 정병순 정세현 정승창 조성래 조영철 조윤태 진주환 채경석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최철 태인식 한개정 허규판 허남균 흥순태 (강병천, 구본홍, 오기현 2014년)

21회(156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육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강화중 공기화 구본능 구정모 구현수 권용효 권재건 김귀경 김기현 김길서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문건 김문성 김부곤 김상덕 김상하 김성수 김영삼 김영수 김유건 김의수 김재수 김재일 김조영 김지호 김창수 김한규 김현태 김형동 김형우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민경식 박규현 박명문 박봉흠 박상기 박상주 박성렬 박순양 박이윤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명 박재선 박종웅 박주용 방효상 배영일 배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서정원 성상철 성정근 손원조 송원경 송재영 신태윤 심광섭 안상갑 안승원 안재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태규 우성건 우종득 유일건 육화원 윤대희 윤상철 윤승근 이동채 이

동춘 이명환 이문수 이상기 이성집 이세형 이성희 이세진 이순희 이영상 이영훈 이익규 이임덕 이재택 이재호 이재홍 이재홍 이종규 이종상 이종열 이준성 이철의 이한석 이혁 이호수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장호 전기환 전우성 전재호 정상인 정연호 정영천 정정화 정채돈 정태영 정한주 조병규 조상호 조성근 조용석 조학래 조현국 조현영 조호제 조희부 진영천 진윤구 최규용 최기호 최낙환 최동완 최민석 최원종 최은영 최창희 탁원령 하영준 한승현 허영도 허창수 황동규 황병구 황영실 황윤성 (박재명 2014년)

22회(131명) 김준홍 강상대 강성봉 강성숙 강호일 고병호 고인준 구자룡 김광국 김광무 김도살 김동원 김동진 김명수 김무슬 김석영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 김영수 김영진 김영철 김완식 김우홍 김원주 김일봉 김정곤 김정민 김종인 김진영 김진철 김창두 김창해 김철현 김학균 김형경 남백우 노평호 문성철 박규묘 박상갑 박석주 박승목 박언표 박윤재 박외근 박재범 박재상 박준호 박찬명 박철민 박행천 박호병 박홍조 방영수 배병한 배춘식 배훈영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

이상렬 이상수 이상운 이상기 이성환 이수백 이순 이승구 이승현 이승호 이영민 이영재 이윤석 이재동 이정숙 이종현 이준석 이충덕 이충호 장기원 장대의 장동국 장백기 장병규 장찬규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영찬 전원의 전재홍 정귀출 정기웅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희원 조민제 조완제 조장래 조한용 조현표 채행윤 죄동하 죄영복 죄인식 죄인표 죄춘홍 죄태인 죄호덕 하길용 하복진 하승윤 하영호 한명경 한윤길 허근창 허대봉 허병상 허연숙 홍종기 황현옥 (박종만, 서승환, 윤순현 2014년)

24회(154명) 강기중 강동우 강영창 강용중 강정운 강정원 강창덕 강청흡 공문수 공성칠 곽두희 곽재용 구본열 구자웅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석 김경호 김기준 김동운 김동진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병수 김봉용 김성권 김성득 김성출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범 김영수 김영철 김운섭 김윤수 김인구 김인철 김종환 김준기 김중섭 김진윤 김태홍 김학성 김한군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설제 박맹렬 박성표 박영곤 박요한 박윤성 박재선 박재춘 박창종 박창호 박홍규

용기 윤순기 윤희대 이근만 이동익 이대우 이명철 이순철 이승숙 이윤택 이재숙 이찬형 이창훈 이홍성 이홍의 임상택 장대락 장선근 장세훈 장홍석 전설태 전영주 정신배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광제 조병숙 조의 주재걸 진익철 천석수 최동하 최병주 최영관 최종덕 최자환 최현립 탁준길 대명산 한봉재 한준석 혀영형 혀택 황곤태

26회(140명) 강도식 강맹원 강수남 강영녕 강영원 고석훈 구영호 권영인 권해국 김경이 김기성 김기표 김만석 김수인 김영섭 김영훈 김윤철 김재수 김재용 김정곤 김종수 김종우 김종철 김체영 김철원 김태규 김태년 김택영 김학래 김형 김호용 노영석 김두천 김상현 민창현 박경재 박권병 박남식 박능출 박대철 박두식 박만식 박상호 박봉희 박오옥 박원세 박원상 박의영 박인섭 박장현 박재욱 박종국 박종호 박판기 방홍기 배갑상 배용호 박문현 서준희 서치호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육호 신기용 신대철 신동준 신재호 심덕수 심송택 안길호 양준영 양국명 왕정일 왕효석 유근숙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윤일중 윤종섭 윤홍석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기주 이동일 이명진 이상원 이승무 이성근 이성만 이양준 이영학 이유상 이재봉 이정곤 이주형 이창식 이현곤 이현섭 이희준 임철호 임형규 장경재 장덕장만옥 장희석 정현준 정영률 정윤철 정의교 정종훈 정태현 조만석 조일제 조해금 주규철 차인식 죄나준 죄성락 죄성수 죄수일 죄영선 죄영수 죄옹덕 죄의수 죄창구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한봉의 한창학 혀현 혀현동우 흥순하 흥형탁 황광수 황백 (임형규 2015년)

27회(114명) 강봉호 강영건 강용병 강태영 공민배 공창오 권명보 김강호 김경수 김경종 김경진 김광익 김광철 김근우 김민수 김병옥 김병철 김병추 김상문 김성문 김한석 김영삼 김용섭 김우진 김원용 김인곤 김일리 김재연 김정희 김종도 김지연 김진명 김태우 김학희 김호균 김홍근 김황열 남용희 류재걸 문규상 문두찬 문성기 박규숙 박병주 박승준 박원구 박정민 박종국 박찬석 박치호 박효근 반정열 방성근 배병록 배인환 배효택 서기룡 성영표 손정식 신한원 안종택 양태종 오용환 유성모 윤모성 윤문태 윤일근 윤정환 윤종락 윤지한 이광호 이민부 이상용 이상훈 이성득 이순길 이영수 이요섭 이원철 이원호 이인규 이정재 이종찬 이천식 이현 이형복 이홍걸 장기남 장원규 장인철 장창조 장해성 전태원 전풍 정남근 정두식 정상곤 정재호 정정길 정철길 조민제 조봉관 조용수 조우영 조인용 죄영호 죄용호 죄휴진 탁승주 하창우 한수길 허종환 황삼진 황지명 (김경진, 한수길 2014년)

28회(113명) 강병우 강현안 고성환 고창준 구영소 권수원 권태세 김관세 김등수 김만종 김명철 김부윤 김순신 김시영 김영철 김용석 김용섭 김인준 김정유 김종배 김준배 김준연 김창준 김태완 김형진 김홍식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곤 박병준 박영규 박임철 박종기 박진국 박진화 배명철 배효진 박영호 서기희 서정환 성락문 손광락 송명석 신영수 신중현 신효철 안재홍 안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호성 오효석 옥상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경남중고동창회보는 본부동창회로부터 제작비 지원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 우편발송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구독료(년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창전 손병용 손연모 손용섭 송갑영 송기영 송현준 안계환 안영수 안진환 안홍철 양한식 엄남기 여상규 여찬기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윤성복 이경상 이병수 이상협 이성모 이영화 이윤제 이인규 이치백 이홍기 임강택 임종대 장광훈 장무성 장상규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대섭 정동철 정진식 정해진 조봉국 조순태 조장현 조정규 조홍기 주성민 주우실 최광육 최영탁 최완식 최학봉 최호림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남명 허범도 허성도 허승조 허온 허인석 흥순우 흥태구 황영환 (송현준 2014년)

23회(167명) 김인홍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곽상인 구대용 구영수 구자섭 권오종 김건일 김경섭 김기열 김대영 김동옥 김두표 김상수 김상영 김상태 김상현 김상현 김석현 김성주 김성호 김영기 김영복 김영철 김영해 김영화 김윤관 김익곤 김재봉 김정록 김정한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성 김태용 김태정 김태홍 김해룡 남상을 도명세 류원형 류재호 문규철 문명옥 문영신 문창호 박광규 박동현 박무열 박문도 박석관 박성희 박수갑 박완수 박의상 박종만 박종현 박준식 박창수 박철병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백해동 서상병 서승환 서영수 손군식 손태형 송영준 송은재 송재섭 송충송 신만동 신상희 신언극 신원종 신해철 안병우 안병관 안병을 안파진 안호창 양희택 오도준 오만석 옥치범 원인건 유봉희 유석산 유진무 윤길원 윤만수 윤순현 윤일한 이동성 이문화 이백기 이병용 이병찬 이부식

배석규 배종갑 백산흠 변용준 변정규 서기홍 서손상 서정대 서정득 석문식 손세영 손인수 손종식 신병식 신장우 안명수 안상수 안형모 안형수 양순권 양희복 여옥주 여철우 오덕호 오수복 윤석만 윤재인 윤종철 윤지현 이기원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학 이석우 이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정희 이종구 이창무 이한영 이현국 이효구 임덕철 임민호 임성근 임철호 장민재 장세호 장일형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동화 정명근 정무열 정영석 정용호 조백인 조병제 조영수 조용건 조용화 조은구 조재진 조태홍 주승환 주정규 지인덕 진병건 차동렬 차문공 차한영 최석구 최원주 최중식 최진우 최현규 태창업 하성기 하육 하재갑 하진태 한상렬 한승철 허구연 흥용기 황규선 황창수 (이수, 최원주, 하재갑 2014년)

25회(128명) 고명식 권수갑 권태용 김건우 김경환 김광돈 김구화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식 김동진 김문국 김봉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성환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영명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원봉 김윤수 김익수 김재홍 김정학 김종국 김종만 김종운 김종택 김종현 김진철 김철수 노규환 노태욱 노태호 도재문 문태길 박거환 박경립 박광용 박동건 박맹우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인국 박점용 박종찬 박현구 배기동 배동명 백승익 백영건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석창재 손국영 손지용 송기현 송세경 송영근 송영기 송인배 승효상 신경학 신성기 안용운 안희석 양계현 양승욱 오양득 우진태 유

용기 윤순기 윤희대 이근만 이동익 이대우 이명철 이순철 이승숙 이윤택 이재숙 이찬형 이창훈 이홍성 이홍의 임상택 장대락 장선근 장세훈 장홍석 전설태 전영주 정신배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광제 조병숙 조의 주재걸 진익철 천석수 최동하 최병주 최영관 최종덕 최자환 최현립 탁준길 대명산 한봉재 한준석 혀영형 혀택 황곤태

유봉수 유흥일 윤경섭 윤대주 윤덕승 윤명수 윤일희 이경포 이만수 이만재 이민우 이승하 이양훈 이용남 이용일 이원철 이윤태 이인재 이정권 이정철 이종대 이현종 이홍오 임영태 임의성 임재덕 장재용 전광병 전남실 전병철 전재만 전진학 정근재 정두현 정병동 정영주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대현 조석태 주종복 주창석 천윤철 최경해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명재 한봉석 한수범 한영호 허남식 허명근 황장두 (안풍 2022년, 강현안, 임의성, 김창준 2014년)

29회(161명) 강대용 강병철 강성훈 강희철 광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 김기수 김기영 김기원 김대영 김대숙 김도태 김병우 김상규 김석윤 김성문 김영 김영준 김영훈 김영휘 김용식 김용환 김윤영 김인술 김인준 김재우 김재현 김정규 김정렬 김정암 김종명 김종운 김종진 김철오 김태호 김하원 김호성 김홍기 류왕성 류영광 문명환 문백섭 문창경 민동식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동흠 박명섭 박문규 박병률 박병준 박병태 박상길 박성철 박인균 박인평 박준모 박창언 박철환 박효근 박성호 배진영 배현호 백성육 변종만 서봉교 서석철 서석희 손영보 손재찬 손태권 손홍근 송철호 신영기 신영주 신용인 신필균 신현수 신호범 신흥기 안종주 안청홍 양석모 양승룡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선영 윤욱 윤종경 이경호 이공철 이문열 이범의 이병우 이상용 이상진 이석조 이승우 이승호 이승훈 이 양 이양호 이우신 이윤상 이재성 이제한 이종포 이준환 이효근 임무택 임상훈 임용호 임채병 장강태 장만 장현경 전병철 전영상 전장화 전정국 전현수 정기조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문상 정세영 정순정 정진환 정희용 제영권 조성진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국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최원락 최원형 최인규 최정만 최종수 최종열 추영배 하창환 한만수 한승경 한승동 한휘철 허광우 현계성 황유명

30회(165명) 강석 강석철 구교의 구을석 권오봉 권용택 김경섭 김경수 김계령 김관일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병순 김상현 김성복 김성은 김수호 김순구 김승대 김영옥 김영일 김영주 김영호 김용한 김육성 김윤철 김유기 김인섭 김재수 김재일 김정웅 김종곤 김종진 김종휘 김진권 김진영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도문성 류구현 마창수 박관식 박규완 박모철 박병규 박웅석 박원호 박은수 박재백 박정국 박중배 박진명 박진수 박찬민 박희관 배경조 배기경 배승한 백기언 변윤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복현 서하수 서현덕 석대식 성낙도 송한식 신교선 신구군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안종화 양문섭 오경일 오광태 오충조 옥유전 왕순모 유영록 유재일 유정동 윤두홍 윤영학 윤인태 윤종순 은창용 이광희 이기환 이동근 이명건 이상구 이상필 이성기 이성조 이수석 이수성 이영일 이영준 이인호 이종육 이종천 이종훈 이준성 이진걸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학수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석일 장용성 장정찬 장호영 장훈상 전경재 전동균 전은석 전준호 정경복 정경홍 정광덕 정규홍 정기룡 정병효 정부광 정성원 정승진 정영호 정용하 정재균 정채화 정

태환 정해석 조동호 조병훈 조봉제 조순영 조재성 차원주 채영재 최병철 최석렬 최우철 최원수 최윤성 최정윤 최진곤 최진권 하규양 하영동 하재명 한효용 허선행 황철민 (김영일, 이상구 2014년)

31회(113명) 강승남 고영호 공광육 공종렬 권해철 김관호 김기정 김 만 김민수 김병기 김성구 김시현 김영완 김영철 김영학 김의석 김인현 김정관 김정덕 김정택 김종근 김종호 김태근 김태주 김학현 김현주 김형수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남철우 노용환 류명석 문성일 민종현 박경수 박덕종 박용관 박인정 박종호 박준석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태교 성보경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송병훈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규열 심재구 심재홍 안기수 안우현 안중수 양문석 오민일 오용환 옥봉균 옥치호 왕정홍 유봉학 윤석중 이경배 이광태 이배철 이병곤 이병태 이상률 이상일 이성식 이수준 이승원 이승진 이원태 이홍규 임종태 전병구 전희수 정무석 정복재 정원규 정정남 정철수 조봉우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장호 최경우 최상규 최원우 최인목 최재선 최재식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하명수 하병관 한문성 허일현 흥 구 흥성수

32회(61명) 강기상 권학률 기영수 김광기 김규원 김상범 김영길 김정열 김종성 김종식 김종주 김종판 김창범 마승철 문계성 민길식 박상학 박성구 박우상 박운대 박진원 박해용 배종찬 서호영 손병철 신국선 신철호 신한국 안병철 안정모 양문성 양성기 양한광 오경명 오범용 우득현 윤병조 윤종열 이문영 이병준 이병훈 이상용 이승건 이재수 이태운 이환용 임채균 임영택 정운용 정의주 정희찬 조준현 조준식 최승찬 최영훈 최종호 최춘호 허수철 허 정황문찬 황성별

33회(74명) 공진환 권영식 김계주 김경경 김근수 김기산 김동환 김령환 김법영 김원일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우 김종윤 김종인 김 철 김태균 김태훈 남경태 노경호 노종현 류장근 민병현 박명진 박민준 박종운 박치호 박태종 배성만 배종현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봉관 송성립 송종현 신동천 신용준 신종구 심희찬 안영훈 예영찬 오상기 오향선 옥숙한 이광호 이동근 이순환 이윤조 이지홍 이진우 이창훈 이해승 이형근 이호인 장남국 장병찬 장정석 정영석 정영호 정인실 조덕환 지창근 최동호 최성현 최영두 최웅남 최호경 최홍원 하지수 한성일 허만준 흥주성

34회(54명) 곽수균 구본철 김동숙 김동진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상환 김수남 김승범 김종염 김주섭 김중근 김지윤 김철영 김충환 김태완 김태하 김희영 노승환 노인선 문창영 박기훈 박민수 박재육 박철호 반태홍 변성수 서용운 오상민 오송대 오주흔 윤성배 이상운 이성엽 이재완 이정현 이진호 장경원 장환근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시형 진양호 최대균 최대수 태일산 허진훈 홍승철 황경조 황기윤 황병주 황호용

35회(70명) 구자민 김관우 김기철 김동인 김동일 김명환 김선택 김우경 김우신 김윤석 김주현 김호성 김홍곤 김환성 나동욱 노규정 류인수 류철인 모재현 문홍근 박종수 박창석 박현호 변상돈 서석권

성규원 성창용 손수범 손재수 손태섭 안창돈 오시영 옥영희 유용숙 이광련 이귀성 이남기 이동욱 이동형 이상권 이성환 이영오 이재식 이종찬 이종택 이창성 이현수 임성배 임영규 임주택 전상건 전성율 정문종 정성운 정인철 정지환 정효영 조상규 주기홍 채인석 천현석 최근식 최기평 최동근 최상우 최석용 하승훈 홍규삼 홍성표 활용순

36회(58명) 강현철 곽상호 권일복 김관용 김덕환 김동기 김병국 김수진 김영훈 김용진 김재호 김정현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진우 김철원 김칠환 김한교 김희환 남우진 박경환 박명하 박수홍 박영준 박영찬 박용철 박철종 방진영 서광원 신기성 신용덕 안영호 안재익 양석용 오정광 윤용수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종상 이학수 임서용 임창섭 장의성 정규영 정인석 정창규 정홍원 제갈재환 조경호 지동섭 차동엽 최승호 하재철 허만율 흥의창

37회(42명) 강태우 권기원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영광 김영태 김원범 김의렬 김종휘 김태중 김형기 김화종 노태건 문진형 박규배 박만규 박선호 박용진 백진수 석영태 성창수 신우진 안용범 양귀수 유호섭 이상백 이용한 이주홍 이충고 이호진 장원의 전인수 조상현 조성각 주주경 최재형 최환승 하승호 허부남 흥병일 흥태윤

38회(45명) 곽동열 권두성 김경태 김권옥 김기현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영길 김원철 김재성 김종진 김관준 김현민 김호철 노광택 류인식 문귀상 문의현 박인철 박정민 박종환 박준표 박현수 배철호 서승현 손태환 심 춘 안길수 이종명 이한국 유관재 윤경만 이동훈 이양배 이창호 정인철 정준기 조석태 조용철 차성철 채주홍 최휴경 한재필 황인국

39회(59명) 강대경 강인정 공영기 김경곤 김기원 김대용 김대혁 김도경 김병기 김용태 김윤홍 김종엽 김천슬 김형철 김희영 노성수 노진곤 마삼민 문기호 박근태 박수곤 박용한 박인석 박종국 박진열 박평오 배효민 서은식 손석호 송정재 심왕섭 안영준 여동섭 오석중 오선호 원우광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승민 이영수 이원영 이준영 이진호 장동수 장윤혁 전상필 정명섭 정우영 정진해 조금룡 조영제 지준환 차문영 천용준 최보식 최정현 하성포 허종기 (차문영 2015년)

40회(61명) 강순석 권귀동 권병서 김경환 김근영 김동근 김동하 김민홍 김성진 김성환 김영진 김종철 김철홍 문기성 문태영 박근성 박무성 박민규 박상범 박상진 박양곤 박재현 박제생 박훈제 배병훈 배영진 배윤성 배진수 변정태 서주현 신상룡 심 철 양영렬 예진원 옥진형 우영환 윤성용 이강육 이 광 이 기 이남훈 이영철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정찬호 최경진 최석우 최신일 최용석 최태훈 하성호 한수열 현정호 흥재옹 흥순호 황성수 황일도 황창수 (권병서, 최용석, 한수열 2014년)

41회(44명) 강석희 권태웅 김덕성 김법성 김봉준 김성수 김인수 김형률 문남진 박보환 박승창 박정기 박정의 박철홍 배종덕 백창봉 성종훈 송인환 안광근 안영준 양덕호 원태웅 윤광희 윤성보 윤성한 윤종진 이경식 이경호 이수영 이양걸 이

영철 이운서 이종민 임병호 장윤호 정용주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하경은 한정호 허종윤 허치희 흥석우

42회(18명) 권영태 김규식 김동수 김병기 김정언 김태구 박동식 백영환 서정호 신봉준 신동복 오석주 옥동석 유기만 이정택 정홍준 제정환 한창형

43회(29명) 강병규 강영대 강진만 강홍준 김경호 김기봉 김신현 김영식 김준근 김진수 김태형 김경훈 문기덕 박상준 박진형 박태건 박형규 심문섭 이상민 이승택 이용상 이성훈 이수철 이재웅 이호영 전세준 정용훈 정찬홍 최성필 (박형규 2014년)

44회(29명) 김경조 김동숙 김왕성 김찬홍 김창용 김학동 남경민 박정민 박정민 배봉건 손동철 안병규 윤승환 윤철홍 이대환 이동렬 이창용 임정훈 임지훈 전광렬 정종운 정희정 조영호 조청현 탁정환 한수성 허태욱 홍광호 황인주

45회(17명) 김병훈 김상수 김상웅 김현호 나성태 박상화 박 웅 박진홍 신상왕 이상현 이준호 장성익 장용모 전금홍 진상영 최재영 하인수

46회(15명) 강성백 강진희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권태윤 김동희 김철홍 서용택 이주용 정영석 정윤철 최원석 한영길 황상철 (한영길 2022년, 권진근, 정영석 2014년)

47회(7명) 고달우 김동희 배준수 성상용 손교영 임형길 정민호

48회(2명) 김정훈 이동재

49회(10명) 고무원 김학군 신택영 안진국 장민건 전성광 정우근 조영철 최경필 최진영

50회(3명) 김정완 박현숙 송승재

51회(6명) 김종현 강승호 옥성진 이시원 정진우 최주해

52회(4명) 김상곤 김현진 이현황 임세훈

53회(2명) 김상숙 이재홍

54회(1명) 박신우

55회(1명) 김태련

56회(1명) 황경진

57회(1명) 최성원

학교운영위원(3명) : 오태순, 윤봉선 (2015년), 조경숙

동문가족(3명) : 김다리아, 김매리아, 표창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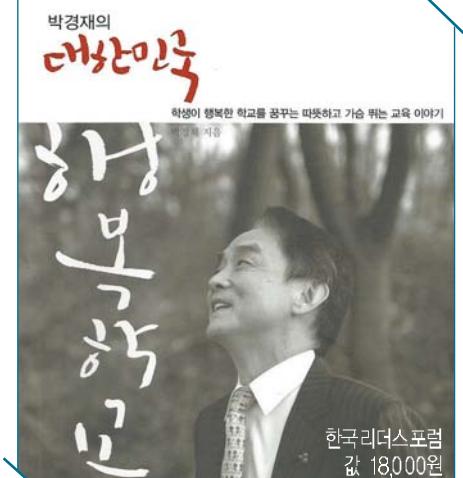
전 재직은사 등(5명) : 남석희, 박금자, 박희호, 이종석, 주차증 (2014년)

기수 & 이름불명 58명

구독료 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실

Tel.(051)245-7551~3/Fax.(051)245-7550



모교발전기금 ‘모교에 대한 마지막 봉사’ 입니다

〈모교발전기금 개인별 기탁 현황(본부)〉

2013년 10월 26일 ~ 2014년 2월 21일

**강창수 (21회) 500만원
김동원 (22회) 300만원
정영철 (12회) 200만원
한명재 (28회) 200만원
임영길 (15회) 100만원
김상효 (16회) 100만원
김동회 (18회) 100만원
김진회 (27회) 100만원
임재덕 (28회) 100만원
박인석 (39회) 100만원
박상식 (19회) 50만원**

- 소계 : 1,850만원

- 총 누계금액 : 10억 6,818만원

▷ 2013년 10월 26일 이전 접수분

△ 故김근준(1회)	100만원	△ 박당희(9회)	20만원	△ 김종수(12회)	50만원	△ 정철기(13회)	30만원	△ 전경명(17회)	100만원	△ 정용환(20회)	300만원
△ 김희철(3회)	30만원	△ 성백규(9회)	10만원	△ 김종원(12회)	10만원	△ 황일인(13회)	100만원	△ 정량부(17회)	100만원	△ 차상곤(20회)	200만원
△ 송두호(3회)	1000만원	△ 이대규(9회)	100만원	△ 김경일(15회)	1000만원	△ 서정욱(15회)	10만원	△ 정태일(17회)	100만원	△ 채경석(20회)	200만원
△ 김주호(4회)	20만원	△ 이영구(9회)	10만원	△ 하정부(15회)	10만원	△ 손부홍(15회)	500만원	△ 정혜표(17회)	10만원	△ 최장하(20회)	300만원
△ 박석만(4회)	20만원	△ 한동대(9회)	50만원	△ 이상모(15회)	30만원	△ 하정우(15회)	10만원	△ 조용운(17회)	30만원	△ 한기완(20회)	100만원
△ 박홍기(4회)	30만원	△ 황영선(9회)	20만원	△ 강종국(16회)	10만원	△ 한해수(15회)	1000만원	△ 천용광(17회)	10만원	△ 김성환(21회)	300만원
△ 양종학(4회)	300만원	△ 김상국(10회)	20만원	△ 강진중(16회)	10만원	△ 박준호(16회)	10만원	△ 최만식(17회)	5000만원	△ 전재호(21회)	1000만원
△ 장수호(4회)	100만원	△ 김선동(10회)	20만원	△ 박준호(16회)	10만원	△ 여성국(16회)	10만원	△ 하영수(17회)	300만원	△ 민훈기(22회)	10만원
△ 정순모(4회)	200만원	△ 김성규(10회)	50만원	△ 김주호(17회)	100만원	△ 강주수(17회)	10만원	△ 허종언(17회)	30만원	△ 이동열(22회)	100만원
△ 정인조(5회)	100만원	△ 박재경(10회)	10만원	△ 김길호(17회)	100만원	△ 권경술(17회)	100만원	△ 황중부(17회)	10만원	△ 장성복(22회)	1000만원
△ 김윤용(6회)	10만원	△ 이봉원(10회)	10만원	△ 김동수(17회)	500만원	△ 김동조(17회)	10만원	△ 혁중부(17회)	100만원	△ 정해진(22회)	50만원
△ 나오연(6회)	100만원	△ 신대수(10회)	20만원	△ 김준연(17회)	100만원	△ 김두백(17회)	10만원	△ 김길제(18회)	1000만원	△ 김동욱(23회)	50만원
△ 노재형(6회)	10만원	△ 오강육(10회)	200만원	△ 김준연(17회)	100만원	△ 김무부(17회)	100만원	△ 김재청(18회)	50만원	△ 김상영(23회)	50만원
△ 오영은(6회)	200만원	△ 이봉원(10회)	10만원	△ 김준위(17회)	100만원	△ 김백수(17회)	300만원	△ 김준길(18회)	100만원	△ 김영기(23회)	200만원
△ 이길상(6회)	3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김준위(17회)	100만원	△ 김병문(17회)	30만원	△ 류종우(18회)	30만원	△ 김용기(23회)	20만원
△ 이희문(6회)	30만원	△ 임호웅(10회)	20만원	△ 김지창(17회)	100만원	△ 김상천(17회)	100만원	△ 박석도(18회)	20만원	△ 김용선(23회)	30만원
△ 임경택(6회)	10만원	△ 전영대(10회)	20만원	△ 김성락(17회)	10만원	△ 김성오(17회)	50만원	△ 박준성(18회)	20만원	△ 김정록(23회)	20만원
△ 장재수(6회)	20만원	△ 정승석(10회)	50만원	△ 김승현(17회)	100만원	△ 김성오(17회)	50만원	△ 황광건(18회)	200만원	△ 김중광(23회)	100만원
△ 정건용(6회)	10만원	△ 조양제(10회)	1000만원	△ 김용구(17회)	100만원	△ 김승현(17회)	100만원	△ 강영범(19회)	10만원	△ 김태용(23회)	100만원
△ 정상철(6회)	30만원	△ 허영오(10회)	200만원	△ 김조일(17회)	10만원	△ 김용구(17회)	100만원	△ 김경재(19회)	100만원	△ 김현(23회)	30만원
△ 정세동(6회)	20만원	△ 공상기(11회)	100만원	△ 김준연(17회)	100만원	△ 김조일(17회)	10만원	△ 김문기(19회)	20만원	△ 노영배(23회)	200만원
△ 최상해(6회)	10만원	△ 김재곤(11회)	30만원	△ 박신도(17회)	200만원	△ 김효남(17회)	10만원	△ 김봉호(19회)	500만원	△ 박수갑(23회)	100만원
△ 허 택(6회)	30만원	△ 백연균(11회)	30만원	△ 박영두(17회)	20만원	△ 문석웅(17회)	50만원	△ 김정국(19회)	10만원	△ 신상희(23회)	100만원
△ 이우호(7회)	50만원	△ 심재룡(11회)	20만원	△ 박영일(17회)	10만원	△ 박가식(17회)	100만원	△ 김증기(19회)	10만원	△ 안병율(23회)	20만원
△ 故공상태(8회)	100만원	△ 강수현(12회)	200만원	△ 박인사(17회)	100만원	△ 박신도(17회)	200만원	△ 김철호(19회)	100만원	△ 안병화(23회)	20만원
△ 구본섭(8회)	100만원	△ 강창수(12회)	30만원	△ 남기진(19회)	100만원	△ 박영두(17회)	20만원	△ 남기진(19회)	100만원	△ 옥치범(23회)	300만원
△ 김봉길(8회)	500만원	△ 구봉근(12회)	30만원	△ 박재구(17회)	20만원	△ 박영일(17회)	10만원	△ 박갑진(19회)	30만원	△ 원인건(23회)	200만원
△ 박동열(8회)	1000만원	△ 권시길(12회)	20만원	△ 박재구(17회)	20만원	△ 박정우(17회)	10만원	△ 박동화(19회)	300만원	△ 육병천(23회)	20만원
△ 안종렬(8회)	100만원	△ 김부생(12회)	30만원	△ 박종화(19회)	100만원	△ 박종구(17회)	100만원	△ 박동화(19회)	100만원	△ 윤순현(23회)	200만원
△ 윤상현(8회)	10만원	△ 김상희(12회)	10만원	△ 박재구(17회)	20만원	△ 박종정(12회)	30만원	△ 성낙출(19회)	100만원	△ 이동성(23회)	100만원
△ 이윤조(8회)	100만원	△ 김선일(12회)	30만원	△ 서재홍(17회)	20만원	△ 신대수(10회)	20만원	△ 김영우(19회)	100만원	△ 송충송(23회)	50만원
△ 장혁표(8회)	100만원	△ 김성찬(12회)	50만원	△ 서정승(17회)	200만원	△ 오강육(10회)	200만원	△ 김정국(19회)	10만원	△ 신상희(23회)	100만원
△ 김영국(9회)	10만원	△ 김수원(12회)	10만원	△ 송유근(17회)	30만원	△ 박창수(12회)	30만원	△ 김증기(19회)	10만원	△ 안병율(23회)	20만원
△ 김종호(9회)	50만원	△ 김용호(12회)	10만원	△ 송인문(17회)	100만원	△ 박창수(12회)	30만원	△ 김증기(19회)	10만원	△ 이병찬(23회)	300만원
△ 김태영(9회)	10만원	△ 김우성(12회)	10만원	△ 신정아(17회)	10만원	△ 박종정(12회)	30만원	△ 김윤호(19회)	100만원	△ 이문희(23회)	200만원
△ 정철기(13회)	3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신정아(17회)	1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이종모(19회)	20만원
△ 황일인(13회)	100만원	△ 이건우(17회)	100만원	△ 신정아(17회)	1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김경일(15회)	1000만원	△ 이수영(12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서정욱(15회)	10만원	△ 이수영(12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손부홍(15회)	5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이상모(15회)	3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하정부(15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한해수(15회)	10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강종국(16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강진중(16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박준호(16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여성국(16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하정부(16회)	1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한해수(16회)	10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정우(17회)	100만원	△ 이언희(10회)	20만원	△ 이정우(19회)	10만원	△ 정인조(23회)	100만원
△ 강종국(16회)	10만원	△ 이정우(17									

△ 박재우(26회)	500만원	△ 정 길(29회)	100만원	△ 주태명(30회)	10만원	△ 최진섭(31회)	200만원	△ 박정기(41회)	20만원	△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 배용호(26회)	50만원	△ 정성훈(29회)	100만원	△ 하구양(30회)	100만원	△ 최해영(31회)	12만원	△ 백선민(41회)	10만원	△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 성재엽(26회)	50만원	△ 조승제(29회)	100만원	△ 하전근(30회)	10만원	△ 최효식(31회)	60만원	△ 변영호(41회)	10만원	△ 부산교통공사용마회
△ 성재일(26회)	200만원	△ 황유명(29회)	30만원	△ 허영재(30회)	30만원	△ 하명수(31회)	30만원	△ 신동진(41회)	20만원	100만원
△ 양준영(26회)	50만원	△ 강석철(30회)	30만원	△ 황철민(30회)	100만원	△ 하학열(31회)	120만원	△ 안광근(41회)	10만원	△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 염윤섭(26회)	100만원	△ 권영인(30회)	30만원	△ 30회 율산동기회	450만원	△ 한광규(31회)	12만원	△ 유수호(41회)	10만원	△ 샌프란시스코동문 50
△ 왕정일(26회)	100만원	△ 권용택(30회)	50만원	△ 공광육(31회)	50만원	△ 허일현(31회)	12만원	△ 윤성보(41회)	20만원	만원 (9회 조동훈, 윤종대,
△ 이경호(26회)	100만원	△ 구을석(30회)	10만원	△ 공종렬(31회)	12만원	△ 흥성수(31회)	120만원	△ 윤성한(41회)	10만원	11회 추기석, 박병호, 12회
△ 이규생(26회)	70만원	△ 김경수(30회)	30만원	△ 권해철(31회)	12만원	△ 김창범(32회)	20만원	△ 이경석(41회)	50만원	최수웅, 14회 정조웅, 김철
△ 이상원(26회)	200만원	△ 김기섭(30회)	100만원	△ 김경영(31회)	12만원	△ 이병준(32회)	100만원	△ 이경호(41회)	30만원	규, 21회 손석보, 양경현, 정
△ 이순철(26회)	50만원	△ 김기수(30회)	10만원	△ 김기정(31회)	100만원	△ 최춘호(32회)	100만원	△ 이양걸(41회)	200만원	갑식, 김수라, 하재청, 23회
△ 이영덕(26회)	100만원	△ 김기업(30회)	50만원	△ 김 만(31회)	100만원	△ 허 구(32회)	10만원	△ 이종민(41회)	10만원	방기준, 26회 육승주)
△ 정거돈(26회)	100만원	△ 김백수(30회)	30만원	△ 김성수(31회)	300만원	△ 허재창(32회)	30만원	△ 이주하(41회)	30만원	△ 시카고동문 107만원 (22
△ 정국근(26회)	100만원	△ 김상직(30회)	10만원	△ 김영철(31회)	12만원	△ 계동원(33회)	30만원	△ 이준석(41회)	10만원	회 김정수 회장 외)
△ 정의교(26회)	100만원	△ 김성복(30회)	10만원	△ 김재술(31회)	60만원	△ 김기산(33회)	20만원	△ 장익조(41회)	10만원	△ 용마회 만원 (시청:91만,
△ 조일제(26회)	30만원	△ 김세일(30회)	30만원	△ 김정덕(31회)	12만원	△ 김법영(33회)	3000만원	△ 정필상(41회)	10만원	사하구청:45만, 서구청:54
△ 최수일(26회)	50만원	△ 김승대(30회)	10만원	△ 김정택(31회)	12만원	△ 김재선(33회)	100만원	△ 조원호(41회)	10만원	만)
△ 하원규(26회)	500만원	△ 김육성(30회)	10만원	△ 김종호(31회)	120만원	△ 김종인(33회)	12만원	△ 천성원(41회)	10만원	△ 재동경문회 200만원
△ 하주곤(26회)	50만원	△ 김재수(30회)	30만원	△ 김진국(31회)	12만원	△ 류장근(33회)	100만원	△ 최호열(41회)	10만원	△ 김정옥(전 경중 재직 교사)
△ 26회 구형회	100만원	△ 김종진(30회)	30만원	△ 김태근(31회)	100만원	△ 류홍영(33회)	30만원	△ 주교용(41회)	30만원	100만원
△ 류재걸(27회)	10만원	△ 김종휘(30회)	100만원	△ 김판덕(31회)	12만원	△ 박명진(33회)	5500만원	△ 허치희(41회)	50만원	△ 남석희(전 경고 재직 교사)
△ 문두찬(27회)	500만원	△ 김창근(30회)	30만원	△ 김현주(31회)	12만원	△ 박성병(33회)	10만원	△ 홍동훈(41회)	30만원	30만원
△ 박치호(27회)	1000만원	△ 김해곤(30회)	200만원	△ 김현율(31회)	12만원	△ 백수현(33회)	50만원	△ 흥석우(41회)	50만원	△ 기 타(이름불명) 3만원
△ 윤종락(27회)	10만원	△ 김현태(30회)	100만원	△ 남기태(31회)	200만원	△ 서재영(33회)	100만원	△ 41회 산악회	30만원	
△ 이요섭(27회)	30만원	△ 박동욱(30회)	50만원	△ 남철우(31회)	60만원	△ 송종현(33회)	100만원	△ 이용상(43회)	10만원	- 합계 : 10억 4,968만원
△ 한수길(27회)	200만원	△ 박원호(30회)	100만원	△ 류명석(31회)	100만원	△ 신용준(33회)	10만원	△ 김진수(43회)	10만원	
△ 27회 동기회(60명)	2740만원	△ 박재백(30회)	30만원	△ 박경수(31회)	200만원	△ 익 명(33회)	1000만원	△ 44회 동기회	500만원	
△ LA 지역 27회 동기회(4명)	△ 박정태(30회)	30만원	△ 박석기(31회)	100만원	△ 이형근(33회)	50만원	△ 장성의(45회)	50만원		
	400만원	△ 박철우(30회)	100만원	△ 박석두(31회)	100만원	△ 정인실(33회)	10만원	△ 47회 동기회(26명)		
△ 구영소(28회)	100만원	△ 서강태(30회)	10만원	△ 박인정(31회)	12만원	△ 최영두(33회)	12만원	300만원		
△ 김명영(28회)	100만원	△ 서민석(30회)	60만원	△ 박종규(31회)	100만원	△ 한상봉(33회)	100만원	△ 김경원(54회)	10만원	
△ 김용석(28회)	10만원	△ 서복현(30회)	100만원	△ 박희암(31회)	12만원	△ 34회 동기회	1000만원	△ 故표종빈(64회)	500만원	
△ 김준연(28회)	100만원	△ 서재원(30회)	30만원	△ 배정우(31회)	12만원	△ 이재완(34회)	500만원	△ 故박태현 은사(박치호, 27회)	1000만원	
△ 김형진(28회)	100만원	△ 서하수(30회)	200만원	△ 서동균(31회)	12만원	△ 이진호(34회)	200만원			
△ 김홍종(28회)	100만원	△ 석대식(30회)	30만원	△ 서수교(31회)	100만원	△ 김동인(35회)	10만원			
△ 노영현(28회)	200만원	△ 송영환(30회)	100만원	△ 서태교(31회)	100만원	△ 김병수(35회)	10만원			
△ 노태욱(28회)	100만원	△ 송한식(30회)	30만원	△ 성오용(31회)	12만원	△ 이남기(35회)	10만원			
△ 박석환(28회)	100만원	△ 신법주(30회)	30만원	△ 손은정(31회)	12만원	△ 황용순(35회)	10만원			
△ 박종기(28회)	50만원	△ 신영주(30회)	30만원	△ 손정수(31회)	24만원	△ 김철원(36회)	100만원			
△ 송명석(28회)	20만원	△ 신윤원(30회)	30만원	△ 손진기(31회)	12만원	△ 이동희(36회)	30만원			
△ 엄보용(28회)	100만원	△ 안종화(30회)	100만원	△ 신상하(31회)	12만원	△ 임창섭(36회)	10만원			
△ 옥상곤(28회)	100만원	△ 오경태(30회)	10만원	△ 신수열(31회)	12만원	△ 정인석(36회)	30만원			
△ 윤경섭(28회)	100만원	△ 왕순모(30회)	30만원	△ 심규열(31회)	12만원	△ 김길영(37회)	20만원			
△ 이원철(28회)	300만원	△ 유영록(30회)	10만원	△ 짐재홍(31회)	12만원	△ 김원범(37회)	10만원			
△ 정재일(28회)	100만원	△ 유재일(30회)	10만원	△ 안기수(31회)	24만원	△ 박용진(37회)	50만원			
△ 한수범(28회)	50만원	△ 윤기송(30회)	50만원	△ 안우현(31회)	60만원	△ 양귀수(37회)	10만원			
△ 김기영(29회)	50만원	△ 윤성덕(30회)	1000만원	△ 오민일(31회)	300만원	△ 조영규(37회)	20만원			
△ 김대욱(29회)	3000만원	△ 윤인태(30회)	50만원	△ 오용환(31회)	120만원	△ 홍병일(37회)	10만원			
△ 김도태(29회)	30만원	△ 윤종순(30회)	30만원	△ 윤정수(31회)	20만원	△ 홍원석(37회)	10만원			
△ 김석윤(29회)	30만원	△ 이광봉(30회)	30만원	△ 이병태(31회)	100만원	△ 황태운(37회)	10만원			
△ 김영기(29회)	10만원	△ 이광희(30회)	20만원	△ 이석우(31회)	12만원	△ 곽동열(38회)	10만원			
△ 김인술(29회)	100만원	△ 이기환(30회)	50만원	△ 이승진(31회)	12만원	△ 박준표(38회)	20만원			
△ 김정암(29회)	100만원	△ 이명건(30회)	30만원	△ 이채웅(31회)	24만원	△ 오희진(38회)	10만원			
△ 박동일(29회)	50만원	△ 이영준(30회)	30만원	△ 장건호(31회)	12만원	△ 이종명(38회)	300만원			
△ 박동혁(29회)	200만원	△ 이인길(30회)	50만원	△ 장성호(31회)	12만원	△ 김도경(39회)	20만원			
△ 박상길(29회)	100만원	△ 이학수(30회)	700만원	△ 장재훈(31회)	12만원	△ 김윤홍(39회)	30만원			
△ 박성철(29회)	200만원	△ 이한수(30회)	20만원	△ 장평우(31회)	300만원	△ 김진호(39회)	20만원			
△ 배진영(29회)	100만원	△ 이환기(30회)	30만원	△ 정 문(31회)	120만원	△ 양정교(39회)	10만원			
△ 사공운곤(29회)	30만원	△ 인준승(30회)	20만원	△ 정용정(31회)	50만원	△ 이영수(39회)	10만원			
△ 송희태(29회)	50만원	△ 임영수(30회)	50만원	△ 정인화(31회)	12만원	△ 한성호(39회)	10만원			
△ 양승오(29회)	80만원	△ 임영호(30회)	30만원	△ 정정남(31회)	132만원	△ 김영진(40회)	10만원			
△ 윤형근(29회)	50만원	△ 장영조(30회)	30만원	△ 정철수(31회)	500만원	△ 이영철(40회)	10만원			
△ 이경호(29회)	100만원	△ 정영호(30회)	100만원	△ 조성근(31회)	12만원	△ 강병오(41회)	10만원			
△ 이석조(29회)	500만원	△ 정승진(30회)	30만원	△ 조영기(31회)	24만원	△ 강석희(41회)	10만원			
△ 이승호(29회)	100만원	△ 정채화(30회)	60만원	△ 조현우(31회)	12만원	△ 김기영(41회)	10만원			
△ 이종포(29회)	50만원	△ 천성일(30회)	10만원	△ 천장호(31회)	12만원	△ 김범성(41회)	20만원			
△ 임광열(29회)	100만원	△ 최상호(30회)	50만원	△ 최경우(31회)	32만원	△ 김봉준(41회)	30만원			
△ 임상흔(29회)	50만원	△ 최영규(30회)	20만원	△ 최봉근(31회)	12만원	△ 김형률(41회)	50만원			
△ 전장화(29회)	100만원	△ 최우철(30회)	500만원	△ 최상규(31회)	12만원	△ 남관희(41회)	30만원			
△ 장 만(29회)	100만원	△ 최재봉(30회)	100만원	△ 최재호(31회)	12만원	△ 류지섭(41회)	30만원			

기금 기탁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총장 황유명
Tel.(051)245-7551~3
Fax.(051)245-7550

한국현화

본부동창회 사무총장 황유명
Tel.(051)245-7551~3
Fax.(051)245-7550

〈회비 납부 현황〉

▶ 회장 흐름

▶ **자문위원**
신현호(14), 김길제(18), 김경재(19), 김영우(19),
박용덕(20), 강창수(21), 임경범(21), 정상인(21)

▶ 복회집

김원주(22), 박상호(26), 류명석(31), 박명진(33),
장인화(35) <이상 300만원>
권영태(22), 박찬명(22), 박홍조(22), 안계환(22),
이영화(22), 이병찬(23), 이부식(23), 정상건(23),
곽두희(24), 노상우(24), 박창호(24), 원동희(24),
정영석(24), 김진철(25), 박종찬(25), 송정규(25),
최동하(25), 이원철(28), 최강호(28), 박성철(29),
양승오(29), 김현태(30), 서하수(30), 윤성덕(30),
최우철(30), 이병태(31), 홍성수(31), 김법영(33),
이성엽(34), 안재의(36), 유호섭(37), 허부남(37),
박인석(39), 우영환(40), 김형률(41), 이양길(41)
<이상 100만원>

※ 용마바둑회 특별기금 500만원

총 50명 (합계 7900만원)

▶ 본부 분담금 낸 기수

9회, 11회, 12회, 13회, 14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37회, 38회,
39회, 40회, 41회, 42회

▶ 야구호원글 냄 기수

11회, 12회, 14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32회, 33회, 34회, 36회, 37회, 38회, 39회, 40회,
41회, 43회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병원



46년 전통,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안양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400병상 암특화 종합병원 G샘병원
유니세프 지정, 아기와 여성에게 친근한 샘여성병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한양방협진병원 샘한방병원
국제공인 세계화 교육의 산실 TCIS 대전외국인학교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병원부문 우수 등급 의료기관
(2010년 1위, 2011년 · 2012년 2위)



이상택 (경남고 13회)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TCIS 대전외국인학교 이사장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 고문
제12대 경남중고 재경동창회 회장

안양샘병원

031 467 9114

G샘병원

031 389 3000

샘여성병원 031 467 1000

샘한방병원 031 463 4310